



あい

2025 下半期



곽현수	문효경	오민준	유나연
김수진	김희은	오지민	최찬영
홍승아	이은서	이진서	이지수

소식지 아이	2025년 하반기
통권	제 10호
발행일	2026년 1월 15일
발행처	아이
편집장	이 수
표지 디자인	이 수
에디터	곽 수, 김 진, 문 경, 오 준, 유 연, 이 서, 최 영, 홍 아, 이 수
레이아웃 디자인	곽 수, 김 은, 오 준, 오 민, 이 서, 이 서, 이 수

일본지역문화학과 하반기 활동 및 공식 행사

코엑스에서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생은 무엇을 했을까?	6
전공이 살아 움직이던 하루 제 36회 일문인의 밤	9
기록과 목소리로 담아낸 제 17회 일문인의 날	11
일본어로 말하는 나의 이야기	14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역의 역사적인 서울코믹월드 진출	16
2025년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생회장, 한 해를 돌아보다.	18
뜨거웠던 열정과 성장의 기록: 2025년 2학기를 돌아보며	20

아이의 집중 취재

토토로 단합대회	23
후쿠오카 크리스마스 마켓 방문기	26
도쿄 카페 탐방기	30
일본인 교환학생의 시선으로 본 인천대학교	32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우들을 위한 인터뷰 : 선배들의 현실 팁	33
면접... 막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 26년도 1학기 교환학생 면접 tip	36
일본어 공부에 음악을 더하다.	39
일지문 레전드 콘텐츠 “단문체”에 대한 고찰	42

사실 저는 한자는 거짓말 조금 보태면 5백 개 정도는 알아요. 25년도 디베이트 집중 취재 45

25가 26에게上 47

25가 26에게下 48

2025년의 "아이"들

2025-2 "아이"들의 활동 후기 51



일본지역문화학과 하반기 활동 및 공식 행사

코엑스에서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생은 무엇을 했을까?

에디터. 문 경
디자인. 이 수

매년 많은 관람객이 찾는 한일 최대 규모의 문화 교류 행사인 '한일축제한마당'은 단순한 축제를 넘어, 한일 양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2025년 한일축제한마당에서는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운영부원들이 홍보팀과 재정팀으로 나뉘어 행사 운영 준비에 참여하며 현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서 일본지역문화학과가 빛나게 하는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부원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총괄 인원을 제외하고 운영부원으로 참여한 학생 11명 중 설문에 응답한 6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축제한마당 운영 활동의 의미와 현장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전공과 관심에서 시작된 참여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 모두 한일축제한마당 운영부원 참여 계기로 '일본 관련 행사에 대한 관심'과 '진로 및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서', 그리고 '학과 활동의 일환'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이는 이번 활동이 단순한 봉사나 외부 행사 참여를 넘어,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생들에게 있어서 전공과 연결되는 실질적인 경험의 장이었음을 보여준다.



25학번 김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전공과 직접적으로 밀접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일축제한마당이라는 대규모 행사에서는 일본 측에서 참여한 부스가 많아 일본 문화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인 방문객들과 직접 마주하며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공과의 관련성이 크다고 느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홍보팀과 재정팀, 역할 분담으로 완성된 현장 운영

이번 한일축제한마당 운영은 홍보팀과 재정팀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준비되었다. 홍보팀은 키링 제작, 리플렛 제작 등을 맡아 준비를 했고, 재정팀은 예산 관리와 물품 정리 등 행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했다.

덕분에 현장에서 일본지역문화학과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무리없이 부스를 운영할 수 있었다. 또한, 홍보팀과 재정팀 구분없이 모두가 나서서 학과를 홍보하는 모습과 분위기가 매우 열정적이었다.

학과 부스 운영은 운영부원들이 직접 만든 리플렛과 키링을 배부하고, 리플렛을 직접 펼쳐 학과 내의 활동 및 소모임을 소개해주었다. 그 후 행사에 같이 참여한 교류 소모임 '토토로', 보드게임 소모임 '유메카라' 부원들이 간단한 소모임 체험을 제공하면서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버추얼 소모임 '니세카이'에서 니세카이의 캐릭터 '한니아'를 모니터에 틀어놓고 실시간으로 사람들과 한니아와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학번 이0원

직접 일본지역문화학과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제작하며 지난 학기동안의 학과 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한일축제한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스터와 부스를 보며 우리 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어 뿌듯했습니다.

25학번 김0은

리플렛 작성을 하며 다시 한 번 일본지역문화학과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직접 디자인한 리플렛을 많은 분들께 전달했을 때,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홍보팀과 재정팀, 역할 분담으로 완성된 현장 운영

이번 운영부원 활동이 전공과 얼마나 관련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이 '매우 관련 있음' 또는 '어느 정도 관련 있음' 이라고 응답했다. 일본어 회화 능력,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방식 등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행사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각 현에서 여러 부스를 운영하였는데, 지역학 수업 시간에 배웠던 현 및 지역의 특색이 나타나는 곳도 많았다.

이는 일본지역문화학과 교육 과정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귀여운 니아~



열심히 홍보 중

23학번 박0형

부스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일본인분들도 꽤 계셨는데, 이들에게 수업시간에 배웠던 회화를 토대로 일본어로 학과를 소개하고 홍보하면서 잠시나마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현재 이 기사를 쓰고 있는 나 자신도 이 행사에 운영부원으로 참가했다. 나는 '수업시간에 배웠던 일본의 문화와 지역의 특색 및 특성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한국인들만 방문할 것 같았던 인천대학교 부스에 일본인들도 많이 방문해주셔서 쉽게 소개할 수 있었다.'라고 전공과의 관련성을 슬쩍 언급해본다.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설문에 응답한 모든 학생들이 한일축제한마당 운영부원 참여를 '추천한다' 또는 '적극 추천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규모 행사 참여 경험, 팀 단위 협업 능력 향상, 그리고 학과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23학번 홍0아

이러한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공 수업에서 배웠던 지식도 활용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겪을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25학번 서0설

한일축제한마당이라는 축제는 사실상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과 관련해서도 이력서에 기술하기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25학번 이0원

우리 학과를 널리 알리는 기회이기도 하고, 운영팀이 아니더라도 각 소모임에서 일원으로서 쌓을 수 있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23학번 박0형

일본의 각 현과 관련된 여러가지 부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일 뿐만이 아니라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생으로서 가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학번 김0은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의 스태프로 참여하며 팀 단위로 활동하는 경험은 쉽게 얻기 어려운 값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방문객과 부스 운영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부스를 둘러보며 일본의 문화와 지역, 기업 활동 등을 직접 접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이해와 견식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안내하며 소통하는 과정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후배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이 살아 움직이던 하루

에디터. 최 영
디자인. 이 서

★ 제36회 일문인의 밤

2025년 11월 13일,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 학과 대표 행사인 '일문인의 밤'이 개최되었다. 일문인의 밤은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생들이 소모임을 중심으로 쌓아온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써, 매년 학생들과 교수님들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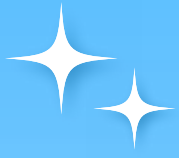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2부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소모임 아이, 유메카라, 토도로, 코코도코의 체험 및 홍보 중심의 프로그램, 메이킹 영상이 1부 순서로 진행되었고, 소모임장 인터뷰 및 활동 후기, 시로바코의 애니메이션 상영, 아와레의 원어 연극 공연, 일본지역문화학과 교수님Q&A, 히비키의 밴드 공연이 2부 순서로 진행되었다.

행사의 1부는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학과 소모임의 활동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여러 소모임의 활동 과정을 담은 자료와 결과물이 전시되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둘러보며 체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일본지역문화학과 내 소모임 활동이 전공과 관심사를 결합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학생회에서 준비한 메이킹 영상 상영은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학과에서 진행된 전반적인 활동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메이킹 영상을 통해서 각 소모임의 분위기와 결과물을 담아내고, 학생회의 노력도 함께 나타나며 학과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이어진 2부 순서는 발표와 공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소모임장 인터뷰를 시작으로 각 소모임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지역 답사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를 발표하며 현장 답사의 중요성을 공유한 코코도코부터, 자체 게임 제작 활동 후기를 통해 일본 서브컬처와 디지털 콘텐츠를 학과 활동으로 확장한 사레에 대해 소개한 니세카이, 애니메이션 상영과 함께 제작 과정을 설명하며 일본 애니메이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창작 활동으로 연결한 경험을 전한 시로바코까지 소모임 활동의 결과물에 각 소모임장의 인터뷰가 더해져, 학생들은 그동안 이루어진 소모임 활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는 일본지역문화학과 교수님들과의 Q&A 토크쇼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어학, 문화콘텐츠, 지역학 세 분야의 전공 트랙을 바탕으로 각 교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교수님들께서는 교수님들의 경험과 학문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답변하시며 학생들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은 강의실 밖에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기회를 얻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행사의 후반부에는 공연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연극 소모임인 아와레는 일본어 원어 연극을 선보이며 무대에 올랐다. 연극 각본과 무대 연출, 번역 작업까지 잘 이루어진 아와레의 연극은 학생들에게 큰 웃음과 공감을 자아내며 많은 환호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밴드 소모임 히비키의 공연이 진행되며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J-POP을 중심으로 한 밴드 공연은 행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히비키 구성원들이 직접 연주하는 J-POP에 학생들은 큰 호응으로 보답했다.

이번 제36회 일문인의 밤은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생들이 학과 활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자리였다. 소모임의 체험 부스와 발표, 질의응답, 공연으로 이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소모임 활동이 단순한 학습과 관심사 공유를 넘어서 의미 있는 결과물과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일문인의 밤은 일본지역문화학과와 학과의 현재를 기록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행사로서 그 의미를 이어가고 있다.



밴드 소모임 히비키 공연



연극 소모임 아와레



기록과 목소리로 담아낸, 제17회 일문인의 날

에디터. 흥 아
디자인. 이 서

2025년 11월 14일,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일본지역문화학과와 최대 축제이자 학술의 장인 '제17회 일문인의 날' 현장을 뉴스레터 '아이'가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일문인의 날'은 학우들이 갈고닦은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선후배 및 교수님과 소통하며 학과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나누는 우리 학과의 전통 깊은 학술제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의 관전 포인트〉

이번 행사는 일본어 스피치 대회를 시작으로 취업 보고서 발표, 장학금 수여식, 학생회 선거, 그리고 졸업생과의 대화까지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6시간 동안 쉼 없이 채워졌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한지만, 워낙 방대하고 유익한 내용이 많았기에, 이번 '아이' 뉴스레터에서는 그중에서도 학우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3가지 핵심 세션을 선정하여 발표자들의 생생한 인터뷰와 함께 집중 조명해 보았습니다.

학문의 깊이를 더하다: 우리 학과 대학원생 조용연 선배님이 말하는 '연구자의 길'

이번 '일문인의 날' 행사에는 대학원에서 학문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조용연 선배님이 참석하여 후배들에게 귀한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학부 생활을 넘어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님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Q1.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번 발표 때도 말씀 드렸듯이, 제 연구 분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연구하는 분야는 일본에 살고만 있는 일본인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활동에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Q2. 학부 때와 비교했을 때, 대학원에서의 공부와 생활은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학부에서는 일본어학, 문화, 문학, 지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폭넓게 배운다면, 대학원에 와서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로 느껴집니다.

Q3. 연구자의 길을 고민하거나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의 학기말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이 연구를 왜 하는가?' 였거든요. 막연하게 좋다는 이유로 진학을 하면 꽤 고생하실 겁니다.

Q4. 나에게 '일문인의 날'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후배님들의 성장을 체감하는 날인 것 같아요. 선배로서의 경험담을 나누고, 후배로서의 도전을 보여주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습니다.

편집위원의 한 마디!

대학원이라는 길을 선택하신 선배님의 열정이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막연함보다는 '나만의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은, 대학원뿐만 아니라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게임 산업의 중심에서 답을 찾다

이번 '일문인의 날'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는 단연 JRC 취업 탐구 보고서 발표였습니다. 게임 산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첫발을 내디딘 곽현수 학우의 생생한 탐구 기록을 인터뷰로 담았습니다.

Q1. JRC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게임회사를 다뤘고 어떤 발표를 하셨나요?

-JRC 취업탐구활동에서는 먼저 게임 관련 직무, 회사, 업계 전반에 대한 진로 정보를 폭넓게 조사했어요.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닌텐도'라는 특정 기업을 선정해서, 해당 회사의 인재상, 직무 특징, 면접 후기/리뷰 같은 자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찾아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게임 업계 진로탐색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를 정리해 보는 출발점 같은 발표였던 것 같아요.

Q2.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실제 게임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다고 느끼셨나요?

-아직 진로 탐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에서 이렇게 쓰인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일본 게임 업계로 나아가려고 생각했을 때 전공이 도움이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느꼈어요. 일본어는 물론이고, 일본의 지역·문화·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들의 정서나 취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바탕이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게임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Q3. 게임 업계 취업을 꿈꾸는 일문과 학우들이 대학 생활 중 특별히 준비하면 좋을 역량이 있을까요?

-저희도 아직 꿈꾸면서 나아가는 입장이라 조언은 조심스럽지만, 제가 느낀 건 한 가지예요.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면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생기면 일단 시도해 보고, 부딪혀 보면서 내가 뭘 더 준비해야 하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조사나 활동이라도 시작하면 그다음이 훨씬 쉬워지는 느낌이었어요.

Q4. 나에게 '일문인의 날'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일문인의 날은 1년 동안 준비했던 JRC 취업탐구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막막했던 진로 탐구가 점점 구체화됐고, 우수 조로 선정돼 발표까지 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또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신 선배님들의 준비 과정을 보면서 부족한 점, 보완할 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탄탄하게 진로 준비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편집위원의 한 마디!

막연했던 진로 탐색을 '닌텐도'라는 구체적인 타겟으로 좁혀나간 곽현수 학우의 실천력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조사라도 일단 시작하라'는 그의 조언처럼,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부딪히며 우리 전공의 강점을 게임 산업이라는 넓은 세상에 녹여낼 곽현수 학우의 용기 있는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취업 탐방기가 게임 업계를 꿈꾸는 많은 학우에게도 나만의 기업 리스트를 만들어보는 구체적인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타쿠, 현실 도피를 넘어 학술적 탐구의 대상으로

이번 '일문인의 날' 학술 발표에서 많은 학우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주제는 단연 '오타쿠'였습니다. 자신만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수 리포트를 작성한 박하준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1. 이번에 발표하신 리포트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오타쿠'였습니다. "왜 그들이 현실 도피하게 되었을까?"가 문제의식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렇게 문제의식을 잡으니 드라마 <전차남>에서 주인공의 사회성이 부족한 행동, 즉 우리가 오타쿠라 부르는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리포트는 거기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Q2.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가장 공들였던 부분이나, 참고했던 특별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문화 콘텐츠 리포트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건 작품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아즈마 히로키의 『동물화 하는 포스트모던』이라는 단행본이 그 연결고리를 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Q3. '우수 리포트'로 선정될 수 있었던 본인만의 비결이나, 과제 작성이 힘든 학우들을 위한 팁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끈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혼자에게 되물어보고, 아니면 챗GPT나 교수님에게 끈질기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리포트가 나오려면 끈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Q4. 나에게 '일문인의 날'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ㅎㅎ

편집위원의 한마디

자신이 좋아하는 '오타쿠' 문화를 날카로운 학술적 탐구로 승화시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낸 하준先輩님의 통찰력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좋은 리포트의 비결이 '끈기'와 '교수님을 향한 끈질긴 질문'에 있다는 실질적인 조언은, 과제와 학업으로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이번 학기 나만의 정답을 찾는 데 꼭 필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열정처럼 우리도 관심사를 연구로 발전시키는 끈기를 발휘해 봅시다!

취재를 마치며: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우리가 함께한 2025년의 조각들

이번 제17회 일문인의 날 취재를 마무리하며, 편집 위원이기에 앞서 일본지역문화학과의 일원으로서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에게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올해 우리 학과로 편집하며 낯선 설렘과 긴장 속에 첫발을 내디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행사 당일, 긴 시간 동안 활을 가득 채웠던 그 열기를 펜 끝으로 다 담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스피치 대회의 열띤 분위기부터 차기 학생회 선출을 축하하는 자리까지, 행사 내내 우리 학과 학우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세 가지의 핵심 세션과 세 분의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사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학우들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우수 리포트' 같은 한 해를 써 내려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며 개인적으로도 큰 위로와 자극을 받았습니다. 학술과 취업, 그리고 연구라는 각기 다른 길을 걷는 분들의 이야기는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저에게 선명한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일본지역문화'라는 공통분모 아래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고민했던 이 '일문인의 날'의 기록이, 훗날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빛나고 있을 때 꺼내 볼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취재에 흔쾌히 응해주신 인터뷰어분들과 늘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교수님, 그리고 학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들의 2025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6년도 우리답게 나아갑시다!



こんにちは

일본어로 말하는 나의 이야기 스피치 대회 후기

에디터. 유 연
디자인. 오 준

인천대 일본지역문화학과, 일본어 스피치 대회를 통해 '배움의 현장'을 만든다.

일본어를 배우는 일은 단순히 외국어를 익히는 것을 넘어, 다른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에서는 이러한 학습의 연장선에서 매년 일본어 스피치 대회를 개최하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직접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어 스피치 대회는 일본지역문화학과의 대표적인 비교과 활동 중 하나로, 일본어 실력 향상은 물론 한국과 일본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발표력과 사고력을 함께 기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로 자리 잡았다. 2025년의 일본어 스피치 대회는 11월 14일 개최되었다.

あざ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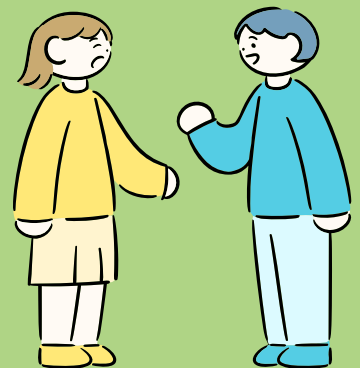
일본어 스피치 대회는 단순히 발음이나 문법 정확성만을 평가하는 대회가 아니다. 참가 학생들은 일본어로 자신만의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청중 앞에서 발표한다. 주제는 일본과 한국의 사회 문제, 문화 콘텐츠, 개인의 경험 등 매우 다양하며, 이는 일본지역문화학과의 학문적 성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학생들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공부와 자료 조사, 원고 작성, 발음 연습, 발표 태도 점검 등 전반적인 발표 과정을 스스로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수업에서 배운 일본어와 일본 사회에 대한 지식을 실제로 '활용'해 보는 기회가 되며, 전공 학습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스피치 대회의 진정한 가치는 결과보다 준비 과정에 있다. 학생들은 일본어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표현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찾기 위해 고민하게 된다. 특히 일본어 스피치 대회를 준비하며 학생들은 단어 하나, 조사 하나의 차이가 의미 전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감한다. 이는 교재 중심의 학습에서는 쉽게 얻기 어려운 경험으로, 일본어를 '시험 과목'이 아닌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또한 '실전 일본어 회화'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예선에 모두 필수 참가하는 행사로서 담당 교수님의 피드백, 선배 및 동기들과 서로의 발표를 감상하는 과정은 학과 내 학습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 중 하나이다. 서로의 발표를 듣고 조언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과 구성원 간의 교류도 활발해진다.

おつかれ



본 기사의 작성자는 이번 일본어 스피치 대회 본선에 진출하며, 일본어를 공부해 온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일본어는 시험이나 과제를 위한 도구로 느껴질 때가 많았지만,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일본어를 '나의 생각을 담아내는 언어'로 마주하게 되었다. 어떤 문장을 선택할지, 어떤 표현이 내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사고의 연속이었다.

특히 본선 무대에 서기까지의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원고를 여러 차례 수정하며 표현을 다듬는 과정에서, 스스로 일본어를 사용해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 과정은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일본어 실력이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도 했다. 일본어로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소리 내어 말하는 경험은 교실 안 학습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것이었다.

무대에 올라 발표를 마쳤을 때 느낀 감정은 단순한 성취감 그 이상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어로 나 자신을 표현해 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로 다가왔다. 이번 경험을 통해 일본어를 잘한다는 것은 그저 외국어를 공부하고 정답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또다른 방법과 과정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일본어 스피치 대회는 자신에게 일본지역문화학과에서의 배움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였다.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우는 전공에서, 말하는 경험은 곧 사고를 확장하는 경험이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본선 진출 경험은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오래 기억에 남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일본어 스피치 대회는 학생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일본어로 말해본 경험'을 남긴다. 이 경험은 이후 교환학생 면접, 기업 취업 면접, 일본어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상황에서 큰 자산이 된다. 실제로 일본어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언어 사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고,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소통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 이는 일본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으로도 이어진다.

일본지역문화학과가 지향하는 인재상은 단순히 일본어를 '말할 줄 아는 학생'을 넘어서, 일본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전달하여 해당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일본어 스피치 대회는 이러한 학과의 교육 목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해당 대회는 일본지역문화학과와 교육적 강점과 방향성을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창구이기도 하다. 언어·문화·지역 연구를 균형 있게 다루는 학과의 특성은 스피치 주제와 발표 내용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일본어 스피치 대회는 일본어 학습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일본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일본어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학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는 이러한 실천 중심의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를 살아 있는 지식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경험, 그 한 번의 도전이 전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일본어 스피치 대회는 오늘도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일본어'와 '생각하는 일본학'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의 역사적인 서울 코믹월드 진출

에디터. 최 영
디자인. 오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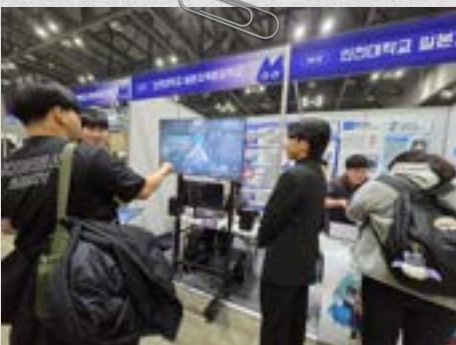
서울코믹월드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코스프레 등 일본 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써, 수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지난 2025년 12월 20~21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서브컬처 행사인 '서울코믹월드'에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의 부스를 운영하며 행사에 참여하였다.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 학과 소모임인 '코이'와 '니세카이'가 중심이 되어 부스를 운영하였고, 추가로 구성된 기획팀이 함께 참여하여 학과와 소모임 활동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스 운영의 중심이 된 '코이'와 '니세카이'는 각 소모임의 활동 성격을 살린 방식으로 관람객들에게 다가갔다. 코이는 애니메이션과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한 소모임 활동을 소개하며, 서브컬처가 학과 내에서 어떻게 창작되고 다뤄지는지를 보여주었다. 니세카이는 자체 제작한 버추얼 캐릭터인 '한니아'를 활용해서, 일본 서브컬처와 디지털 문화에 대한 학과 학생들의 관심과 활동의 결과물을 소개하였다.

'한니아'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학과와 소모임에 대한 단순한 홍보를 넘어, 일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참가 학생들이 함께 제작한 학과 팸플릿과 코이 책자, 키링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이러한 행사 자리에서 인천대학교 학과 차원의 부스를 운영했다는 점은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의 일본에 대해 배우는 곳에 그치지 않고 그 문화를 실천하고 공유하는 학과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실제로 22학번 송0우 학생은 “항상 오타쿠의 덕질을 위해서만 가는 공간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학우들과 다같이 부스를 운영해보니 색다른 경험이 되었고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에 더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에서 학과가 직접적으로 운영한 부스의 규모는 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전공과 연결된 공간에서 실제로 부스를 운영했다는 경험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본 문화가 살아 움직이는 현장에서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코믹월드 행사 참가는 매우 값진 시도이자 귀중한 경험이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지역문화학과의 서울코믹월드 참가는 전공 학습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강의실에서 배웠던 일본 문화나 콘텐츠가 실제 행사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해 보며, 학생들은 일본을 ‘공부하는 대상’이 아닌, ‘경험하는 문화’로써 받아들일 수 있었다.



22학번 백0겸 학생은 “2025년 한해동안 여러가지로 바쁜 나날들의 연속이었는데 한 해의 마무리를 한국 최대의 서브컬처 행사인 서울코믹월드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게 참 뜻깊고 값진 경험이었다”고 밝히며 긍정적인 행사 참여 소감을 남겼다.

올해 서울코믹월드 행사 참여는 더욱 입체적인 학과 활동으로의 첫걸음으로써, 올해 성공적인 첫 번째 서울코믹월드 참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지분의 학생회장, 한 해를 돌아보다

에디터. 문 경
디자인. 곽 수

대학생활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것은 강의실보다도, 사람들과 함께했던 순간과 그 속에서 만들어진 추억일지도 모른다. 2025학년도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생회는 ‘화합’이라는 목표 아래, 학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왔다. 그 중심에는 직접 학생회장으로 나서 학과의 한 해를 이끌었던 학생회장의 고민과 선택이 있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2025학년도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생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출마 계기부터 활동 목표, 그리고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까지 들어보고자 한다.

1)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

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를 묻자, 그는 ‘만들고 싶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행사나 추억처럼 눈에 보이고 마음에 남는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출마의 가장 큰 이유였다.

전역 후 복학한 뒤, 학과 행사에 참여하며 느꼈던 즐거운 기억 역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다 함께 웃고 즐기며 보냈던 시간들이 오래 기억에 남았고, 이번에는 그 기억을 ‘참여자’가 아닌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어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훗날 대학 시절을 돌아봤을 때, 그 한 페이지 속에 제가 있어서 학우들이 한번쯤은 떠올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에는 단순히 직책을 맡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학과의 시간 속에 함께 기억되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2) 2025 학생회의 키워드, ‘화합’

2025년도 학생회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목표는 단연 ‘화합’이었다. 학과에 소속된 모든 학우가 하나가 되어 즐겁고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보내는 것, 그것이 학생회가 지향한 방향이었다.

이를 위해 학생회는 특정 인원만 참여하는 행사가 아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행사에 집중했다. 연합 MT와 개강총회처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자리부터, ‘일문인의 밤’, ‘한일축제한마당’과 같이 학과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준비해야 하는 행사까지 폭넓게 기획도 하고 운영도 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준비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과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며 ‘같은 팀’이라는 감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혔다.

3) 회장 활동을 통해 가장 성장한 부분, ‘소통’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느낀 부분으로 그는 ‘소통’을 꼽았다. 업무를 나누고 정리하는 과정, 각종 공지 전달, 행사 관련 문의 대응 등 수많은 상황에서 끊임 없이 대화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했다.

처음에는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했지만, 학생회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함께 해결하는 방식’에 익숙해졌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과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한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소통이 있었다. 이 경험은 단순히 학생회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

4)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순간, 연합 MT

여러 행사 중에서도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활동으로는 연합 MT가 꼽혔다. 대학생활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표적인 행사이기도 한 MT는, 이번에도 많은 학우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익숙한 학교를 벗어나 바다를 앞에 두고 함께 뛰놀고, 밤에는 바비큐 파티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속에서,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들도 점차 가까워졌다. 학교에서는 쉽게 나누기 어려웠던 이야기들까지 오가며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던 점이 특히 큰 의미로 남았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학과 구성원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

5) 학생회 '하나비'만의 장점, '사람을 보고 나누는 분업'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생회의 장점으로 그는 '완벽한 분업'을 언급했다. 홍보부와 재정부로 나뉜 기본 구조 속에서, 단순히 일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성향과 강점을 고려한 역할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홍보물을 잘 만드는 학생은 디자인을 맡고, 영상이나 릴스 제작에 강한 학생은 새로운 시도를 하며 콘텐츠를 제작했다. 무작정 일을 배분하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자 했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회 내부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학과 전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6) 후배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차기 학생회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 그는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을 강조했다. 임기 초반 구상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실현하지 못한 과방 환경 개선이나 홍보물 디자인의 기준점과 같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의 학생회가 이를 이어받아 더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회 활동은 일부 부원만의 일이 아니라, 학과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강조하며,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학생회 부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 나가며

2025학년도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생회는 화합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시간을 만들어왔다. 그 과정 속에서 쌓인 경험과 변화는 앞으로의 학과 활동에도 분명히 이어질 것이다. 이 한 해가 누군가의 대학생활 속에 오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페이지를 이어갈 새로운 학생회의 이야기도 기대해본다.

뜨거웠던 열정과 성장의 기록 : 2025년 2학기를 돌아보며

에디터. 홍 아
디자인. 오 준

2025년 2학기, 우리 일본지역문화학과의 시계는 정말 설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일본 교환학생을 준비하며 설렘던 시작부터,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했던 행사, 그리고 학기 끝자락의 학술제까지. 뒤돌아보면 어느 하나 대충 지나간 것이 없었는데요. 우리 학우들이 이번 학기에 어떤 발자국을 남겼는지, 그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1. 학기 초: 글로벌 파견을 위한 준비와 학내 구성원 간의 네트워킹

9월 개강과 동시에 우리 학과의 중요한 연례 일정 중 하나인 일본 대학 교환학생 파견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지역문화학과 특성상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단순한 어학연수를 넘어 현지 지역 문화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됩니다.

이번 학기 초에는 지원서 작성부터 일본어 면접, 인성 면접에 이르기까지 학생들 간의 정보 공유와 준비 과정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학과 내에 건강한 긴장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같은 목표를 가진 학우들 사이의 실질적인 정보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합격 여부와 배정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형성된 학술적 공감대는 학기 초 학과 분위기를 주도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9월 말 학교 축제 때는 공부 대신 서로의 얼굴을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 학교에 온 일본인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축제를 즐겼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푸드트럭 음식을 나눠 먹으며 배운 일본어 한 마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웃었던 시간들은 강의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짜 '교류'의 가치를 알려준 시간이었습니다.

2. 학기 중반: 대외 협력 활동과 학술적 몰입의 병행

추석 연휴 이후 진행된 학기 중반부는 학술적 내실과 대외 실무 경험이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의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학과는 대규모 외부 행사인 '한일축제한마당'에 참여하며 학과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알렸습니다.

해당 행사의 부스 운영을 위해 학우들은 이미 1학기부터 장기간의 기획과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중간고사 일정과 겹치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부스 운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대규모 행사의 기획부터 실행, 현장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는 우리 학과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콘텐츠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확인하는 기회였으며, 학과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학기 초의 분주함이 차분한 학구열로 전환되었습니다. 각 과목의 심화 이론을 정리하고 시험을 소화하며, 학우들은 일본지역학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의 기반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3. 학기 후반: 팀 프로젝트를 통한 실무 연구 및 학술제의 성황리 개최

학기 후반부는 아마 다들 '발표와 과제의 연속'으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기말은 단순한 시험보다는 학우들이 직접 주제를 정해 연구하고 발표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문화, 경제, 콘텐츠 등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드느라 다들 밤잠을 설쳐가며 리포트를 썼습니다.

특히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배우는 점도 많았습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만든 게 느껴질 만큼 발표 자료의 구성과 전달력이 정말 탄탄했습니다.

또한 '일문인의 밤' 행사는 선후배와 교수진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적 성과를 축하하고, 학과 공동체의 소속감을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일문인의 날'에서 일본어 스피치 대회를 통한 언어적 전문성 증명은 물론, JRC 취업 탐구 보고서와 문화콘텐츠 우수 리포트 발표를 통해 우리 학과만의 탄탄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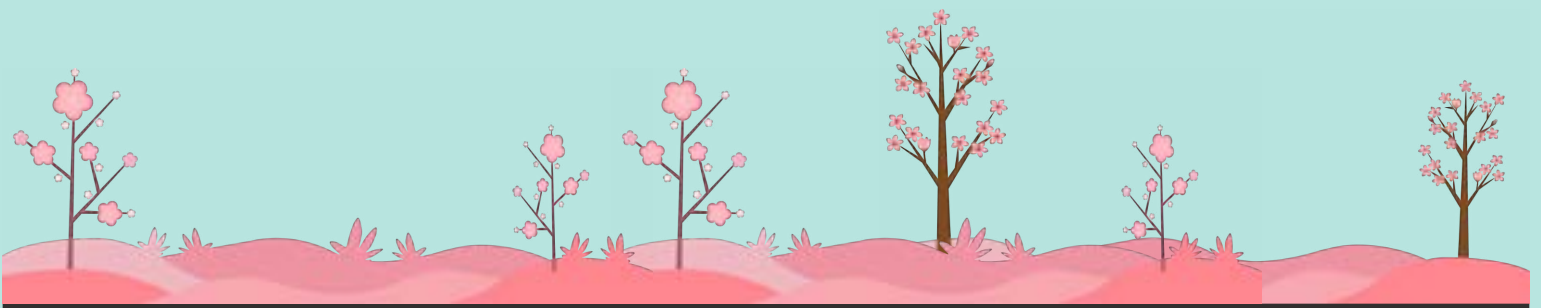


편집위원 총평 - 성장의 기록을 뒤로하며

2025년 2학기에는 우리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실질적인 성장을 일궈낸 시간이었습니다. 9월의 교환학생 면접부터 12월의 기말까지, 촘촘하게 짜인 학과 일정 속에서 학우들은 지치지 않는 연구 열정과 실행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 쌓인 경험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새로운 한 해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학과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일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모든 학우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이의 집중 취재

토토로 단합대회

함께 만들고, 함께 웃다

— 일본지역문화학과 국제교류동아리 '토토로' 단합 대회 이야기

지난 10월 30일, 일본지역문화학과 국제교류동아리 토토로는 부원 간의 친목 도모와 소속감 강화를 목표로 단합 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레크리에이션을 넘어, 함께 만들고 함께 웃으며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토토로는 일본지역문화학과를 중심으로 한국 학생과 유학생이 함께 활동하는 국제교류동아리로, 일상 속 교류를 통해 문화적 거리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단합 대회 역시 이러한 토토로의 활동 방향을 잘 보여주는 자리였다.



토토로 ㄷ조 비빔밥

함께 요리하며 가까워진 시간, 비빔밥 만들기

단합 대회의 1부 활동은 비빔밥 만들기로 진행되었다. 여러 명이 한 팀이 되어 재료를 손질하고, 역할을 나누어 음식을 완성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부원들은 학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교류할 수 있었다.

특히 비빔밥이라는 음식은 각기 다른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요리라는 점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인 토토로의 특성과도 잘 어울렸다. 한 그릇의 비빔밥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는 과정은 단합 대회의 취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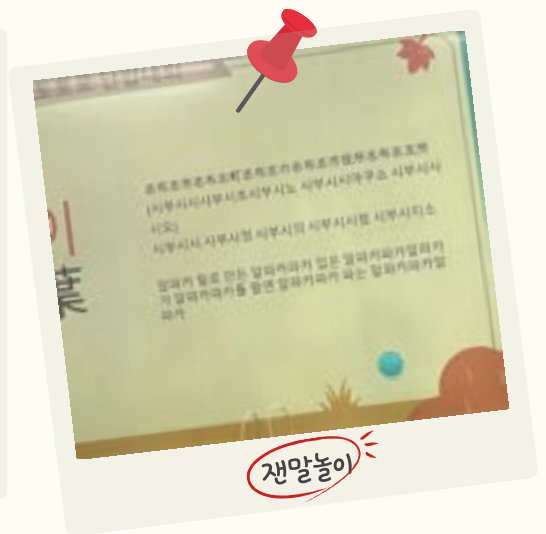


웃음으로 하나 되다, 2부 레크리에이션 활동

2부에서는 젠말놀이, 몸으로 말해요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이어졌다. 말과 몸짓을 활용해 주어진 주제를 표현하고 맞히는 게임들은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었다. 특히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는 활동은 일본지역문화학과 및 국제교류동아리라는 토토로의 성격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의 긴장은 풀렸고, 웃음과 응원이 이어지며 공간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느껴졌다. 평소 수업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모습들이 드러나며, 부원들은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2부 활동은 단합 대회의 분위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리며, 부원 간의 심리적 거리를 크게 좁히는 역할을 했다.



일본지역문화학과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배움

토토로의 활동은 일본지역문화학과의 전공 학습을 교실 밖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수업에서 배운 언어와 문화는 동아리 활동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교류와 소통의 도구로 활용된다. 이번 단합 대회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행사였다.

이번 단합 대회에 참여한 한 부원은 인터뷰를 통해 토토로의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25학번 오0민 학우 인터뷰-

Q1. 일본지역문화학과(국제교류동아리 토토로)의 분위기가 이번 활동을 통해 어떻게 느껴졌나요?

A. “이번 활동을 통해 토토로가 활기차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의 동아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빔밥 만들기 와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처음 만난 자리임에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Q2. 함께 요리하고 게임을 하는 과정이 부원 간의 거리감을 줄이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A. “함께 요리를 하고 게임을 하는 시간은 부원들 사이의 어색함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웃고 서로를 도우며 소소한 순간을 공유하다 보니, 그 과정 자체가 서로를 한 발짝 더 가깝게 만들어주었습니다.”

Q3. 이런 활동이 전공 수업이나 학과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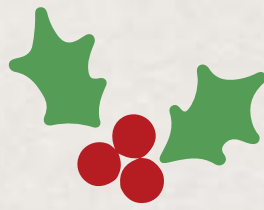
A. “이러한 활동은 학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기억하고 친해진 만큼 수업이나 학과 활동에서도 의견을 더 편하게 나눌 수 있고, 다양한 학우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느꼈습니다.”

Q4. 일본 문화나 교류에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토토로를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말하고 싶으신가요?

A. “토토로는 조금의 용기로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앞으로도 토토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과 구성원 간의 교류를 이어가며, 일본지역문화학과의 매력을 알리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일본 문화와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다면, 토토로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또 다른 배움을 경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특집

크리스마스 마켓 방문기 - 후쿠오카 하카타, 텐진 -

에디터. 이 수
디자인. 이 서

외국1년 365일 중 가장 설레는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크리스마스, 올해는 조금 특별하게 일본 후쿠오카에서 보내게 되었다. 후쿠오카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クリスマスアドベント'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데, アドベント(Advent)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4주를 뜻하며 이 기간을 사랑·기쁨·평화·즐거움·희망 같은 마음으로 채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또한 후쿠오카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의 주제는 'Five Senses Christmas(오감에 울리는 크리스마스)'로, 일루미네이션(빛)과 음악 이벤트(소리), 아트 콘텐츠(예술)를 중심으로 겨울의 후쿠오카를 연출한다고 한다. 이번 글에서는 후쿠오카에서 직접 방문한 세 곳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중심으로, 각 마켓의 분위기와 추천 포인트, 그리고 현장에서 느낀 소소한 팁을 정리해 보았다



<하카타 역 크리스마스 마켓>

위치 : JR하카타역 앞 광장
운영 기간 : 2025년 11월 1일 - 12월 25일(일루미네이션은 2026년 1월 12일까지)
마켓 운영 시간 : 12:00 - 23:00
일루미네이션 시간 : 17:00 - 24:00
입장료 : 없음
*매년 운영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카타 역 크리스마스 트리들-

하카타 크리스마스 마켓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역의 광장에서 진행되어서 그런지 방문하는 사람도 많았다. 일본인 친구도 크리스마스 날 데이트를 위해 하카타 역에 갈 예정이라고 할 정도로 현지에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러 찾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다.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는 슈퍼마리오 캐릭터들과 콜라보한 트리로 꾸며져, 화려한 색감과 귀여운 디자인 덕분에 보는 재미가 있었다. 매년 트리 콘셉트가 달라진다고 하니, 방문 시기에 따라 트리를 구경하는 즐거움도 기대할 만하다. 또한 하카타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머그컵도 눈에 띄었다. 머그컵은 단독 구매가 가능하며, 핫초코나 뱅쇼 같은 따뜻한 음료를 머그컵에 담아 마시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다만 머그컵을 포함한 구성으로 구매할 경우 가격은 대략 1,000~1,100엔 정도로, 저렴한 편은 아니다.

tip1. 핫초코나 뱅쇼를 담아 마셨던 머그컵은 따로 포장되지 않는다. 한국으로 가져갈 계획이라면 에어캡이나 깨짐 방지 포장재를 미리 구매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

tip2. 사진은 일루미네이션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대에 더 잘 나온다. 사진을 잔뜩 남기고 싶다면 저녁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 주제 중 하나인 음악 이벤트도 현장에서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노래 소리를 따라 중앙무대로 향하니, 무대 앞에는 이미 많은 관람객이 모여 있었다. 캐럴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거나 가사를 따라 부르며 공연에 호응했고, 낯선 사람들끼리도 자연스럽게 같은 분위기를 공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tip3. 공연을 가까이서 관람하고 싶다면, 이른 시간부터 기다리는 것을 추천한다. 평일임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 무대 가까이에서 관람하는 것은 어려웠다.

-하카타 역에서 공연-



〈텐진 중앙 공원 크리스마스 마켓〉

위치 : 텐진 중앙 공원
 운영 기간 : 2025년 11월 13일 - 12월 25일 (일루미네이션은 2026년 1월 6일까지)
 마켓 운영 시간 : (평일)17:00 - 22:00 / (주말) 12:00 - 22:00
 일루미네이션 시간 : 17:00 - 24:00
 입장료 : 없음
 *매년 운영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텐진 중앙 공원 크리스마스 트리, 요염 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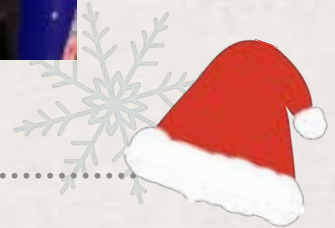
‘걸어서 즐기는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텐진 중앙공원에는 빌딩 사이로 상징 트리와 일루미네이션이 어우러진 빛의 숲이 조성되어 있었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빛나는 자동차 오브제에 더해, 올해는 산타 열차, 호두까기 인형, 하늘을 나는 산타 등 새로운 포토 스팟도 추가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하카타역 크리스마스 마켓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연인 단위 방문객이 더 많았고, 하카타역에 비해 분위기도 한층 차분했다. 하카타역이 마켓 중심으로 먹거리와 부스를 빠르게 둘러보는 느낌이라면, 텐진 중앙공원은 산책하듯 천천히 걸으며 조명과 조형물을 감상하기에 더 적합했다. 무엇보다 마켓 자체보다 일루미네이션과 조형물의 비중이 크게 느껴졌는데, 산타와 눈사람 조형물들이 특이한 포즈를 취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게 됐다. 조형물 앞에서는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도 많았고, 인기 있는 조형물은 대기 줄이 금방 길어지는 편이었다.

tip4. 조형물이 특이한 만큼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이 줄이 제일 짧을 때이니, 사진을 찍고 싶은 조형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재빠르게 줄 서는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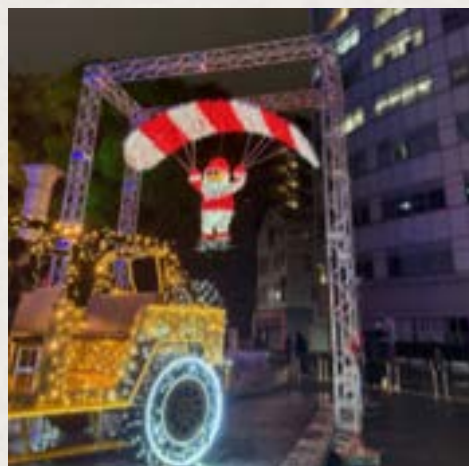
-빛의 숲, 눈사람-



tip5. 조형물이 특이한 만큼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이 줄이 제일 짧을 때이니, 사진을 찍고 싶은 조형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재빠르게 줄 서는 것을 추천한다.



-호두까기와 힙한 산타, 하늘을 나는 산타-



<귀빈관 앞 광장 크리스마스 마켓>

위치 : 구 공회당 귀빈관 앞 광장

운영 기간 : 2025년 11월 12일 - 12월 25일

마켓 운영 시간 : (평일) 17:00 - 22:00 (주말) 12:00 - 22:00

일루미네이션 시간 : 17:00 - 24:00

입장료 : 없음

*매년 운영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마켓은 2023년부터 'KBC FESTA de SANTA'가 새롭게 추가되어, 라이트업된 구 후쿠오카현 공회당 귀빈관 앞에 100개 이상의 세계 산타 인형이 전시된다. 크고 작은 산타는 물론, 선글라스와 반팔 차림의 이색적인 산타 등 다양한 산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마켓들과 달리 각양각색의 산타가 특히 많아 "평생 볼 산타는 다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앞서 소개한 두 크리스마스 마켓에 비해 규모는 가장 작았지만, 전시 콘셉트가 확실해 짧은 시간 안에도 분위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먹거리 중심이라기보다 산타 전시에 가까운 구성이어서, 다른 마켓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었다.



-귀빈관 앞 트리, 남방 산타-

tip6. 광장이 넓지 않아 사람이 생각보다 붐빈다. 일루미네이션을 볼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덜 붐비는 낮에 방문해 산타와 사진 찍는 것을 추천한다.

크리스마스 마켓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한정 머그컵, 전체 분위기가 달라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었다. 먹거리 중심으로 활기찬 분위기를 원한다면 하카타역을, 일루미네이션과 조형물을 보며 산책하듯 즐기고 싶다면 텐진 중앙공원을, 산타 전시처럼 확실한 콘셉트를 보고 싶다면 귀빈관 앞 광장을 선택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같은 후쿠오카라도 마켓마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 시간 여유가 있다면 여러 크리스마스 마켓을 둘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도쿄 카페 탐방기

에디터. 이 수
디자이너. 오 민

여러분은 카페 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시원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 방문하기도 하지만, 카페의 분위기에 매료되어 종종 방문하곤 합니다. 올해 2월과 6월 개성이 가득한 도시 도쿄에 방문했었습니다. 도쿄에서도 저마다의 매력을 가진 카페들을 방문했는데, 그중에서도 분위기가 좋고 디저트도 맛있었던 도쿄의 카페 네 곳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하브스 케이크

위치 : 일본 〒160-0022 Tokyo, Shinjuku City, Shinjuku, 3 Chome-38-1 ルミネエスト新宿 地下 2階
운영시간 : 11:00 ~ 21:00 (휴무일 : 없음)
대표 메뉴 : 딸기 밀푼유, 밀크 크레이프
가격 : ¥1,000~3,000



에디터 추천 메뉴 : **밀크 크레이프**

하브스 케이크는 1976년, '멜로즈'라는 작은 다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다방의 주인은 다방에서의 시간이 좀 더 풍부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케이크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하브스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1981년 아키히라 나고야시 사카에(愛知県名古屋市栄)에서 하브스 1호점이 문을 열었고, 현재 하브스는 나고야뿐만 아니라 도쿄, 오사카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매장은 도쿄 신주쿠점이었습니다. 2월에 처음 방문하고 너무 맛있어서 6월에 도쿄를 재방문했을 때 다시 찾을 정도로 인상 깊은 곳이었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 가격은 약 1,000엔 정도로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맛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먹었던 밀크 크레이프는 얇은 크레이프 사이사이 키위, 멜론, 딸기, 바나나 등 다양한 과일이 들어 있어 풍부하고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본 감성 카페"는 아니지만, 케이크만으로 방문할 가치가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tip. 매장 이용 시 웨이팅이 있을 수 있으며, 1인 1음료 주문이 필수이기 때문에 인당 약 2,000엔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포장 구매 시에는 음료 주문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료를 마시고 싶지 않다면 포장 구매를 선택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2. 고소안

위치 : 1 Chome-24-23 Jiyugaoka, Meguro City, Tokyo 152-0035 일본
운영시간 : 12:00 ~ 17:30 / 주말 11:00 ~ 17:30 (휴무일: 수요일)
대표 메뉴 : 말차 라떼, 크림 안미츠
가격 : ¥1~1,000



에디터 추천 메뉴 : **안미츠(あんみつ)**

*안미츠란

안미츠는 일본의 전통 화과자 중 하나로, 삶은 팔과 각종 과일, 그리고 각종 쌀가루 한 우뚝가사리 목이 어우러진 디저트이다.

고소안(古桑庵)은 도쿄 자유가오카(自由が丘)라는 동네에 있는 다실입니다. 고소안이라는 이름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장녀의 사위인 소설가 마츠오카 유즈루(松岡譲)가 그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다이쇼 말기에 이 건물을 지은 주인 할아버지인 와타나베 히코(渡辺彦) 씨와 마츠오카 씨는 테니스 친구로 은퇴 후 재미로 함께 다실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마츠오카 씨는 와타나베가 좋아하는 뽕나무를 고향 나가오카에서 매입해 쇼와 29년 다실 고소안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다실의 내부는 다다미로 이루어져 있었고 굉장히 고즈넉한 분위기였습니다. 친구는 말차 라떼를, 저는 안미츠를 주문했습니다. 이때 안미츠를 처음 접해봤는데, 과일과 팔의 조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과일 아래에는 우뚝가사리가 깔려있었는데, 우뚝가사리를 간식으로 먹는 것이 신기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였지만, 시원하고 담백한 맛에 자꾸 손이 갔습니다. 평소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면, 관광지외 같이 사람이 북적이는 곳을 주로 찾았는데, 이번에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곳에서 벗어나 한적한 일본 전통 가옥에서 일본의 화과자를 맛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tip. 평일 오픈 시간에 맞추어 갔을 때 웨이팅은 없었으나, 정원이 보이는 창가 자리는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고 싶으신 분은 오픈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부터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Canal Cafe

위치 : 1 Chome-9 Kagurazaka, Shinjuku City, Tokyo 162-0825 일본
 운영시간 : 11:30 ~ 22:00 (휴무일 : 없음)
 대표 메뉴 : 마르게리따 피자, 그린 카레
 가격 : 식사 메뉴 ¥1,000~2,000 / 카페 메뉴 ¥1~1,000



에디터 추천 메뉴 **푸딩**

도쿄의 '리틀 파리'라고 불리는 가구라자카(神楽坂)에 위치한 카페로 식당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 사색을 즐기기에 제격이었습니다. 이 카페는 도쿄에서 유학하고 있는 친구의 추천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까지는 그냥 강가에 있는 카페일 것으로 생각해 큰 기대 없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풍경이 너무 예뻐 도쿄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입니다. 카페에 머무르는 동안 제가 꼭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먹었던 빙수는 그냥 일반적인 빙수 맛이었지만, 푸딩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푸딩은 달기 마련인데, 푸딩 아래 소스가 일반적인 캐러멜이 아닌 커피 소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소스가 푸딩의 단맛을 잡아 줘 끝까지 질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tip 풍경을 감상하며 커피를 즐기고 싶으신 분은 봄, 가을에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는 대부분 야외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위로 다소 힘들 수도 있습니다....

3. 不純喫茶ドーブ

위치 : 1 Chome-8-3 Ueno, Taito City, Tokyo 110-0005 일본
 운영시간 : 12:00 ~ 21:00 / 주말 10:00 ~ 22:00 (휴무일: 없음)
 대표 메뉴 : 크림 소다, 핫케이크, 나폴리탄
 가격 : ¥1,000~2,000



에디터 추천 메뉴 : **아라모드**

최근 일본 MZ세대 사이에서 인기인 킷사텐으로, "불순한 다방"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낮에는 카페로, 밤에는 선술집이기 때문에 불순한 다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내부는 킷사텐의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으로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클래식한 소품, 조명 등이 눈에 띄니다.

킷사텐이라고 하면, 중장년층이 주 고객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킷사텐은 일본의 MZ들을 겨냥해 만든 곳이라 그런지 주 방문 고객층은 20대 커플과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아라모드와 메론 소다를 주문했습니다. 푸딩은 단단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었고, 푸딩 아래에 깔린 초코 비스킷과의 조화도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느끼해질 때에는 탄산이 있는 메론 소다로 느끼함을 달래며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tip 웨이팅 회전율이 높긴하지만, 웨이팅이 싫으신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라모드란?
 일본식 양식 디저트의 일종으로 커스터드푸딩을 중심으로 각종 과일과 디저트를 한 접시에 올려서 내놓는 것을 뜻한다.



저의 카페 탐방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약 도쿄에 방문할 예정이라면, 소개해 드린 네 곳의 카페 중 취향에 맞는 곳을 골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 교환학생의 시선으로 본 인천대학교

에디터. 오 준
디자인. 김 은

안녕 사쿠라~ あけおめ

고마워 새해 복 많이 받아 ㅎㅎ

새해부터 귀찮게 해도 될까?

교환학생으로 인천대학교를 찾았던 한 일본인 학생이 한 학기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의 대학 생활은 그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 수업과 캠퍼스,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상까지, 교환학생으로서 경험한 인천대학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일본인 교환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인천대학교와 한국 대학 생활의 단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천대에 교환학생 온 계기를 들려주세요.

사쿠라: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오이카와 사쿠라라고 합니다. 한국어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평소에도 한국 아이들을 좋아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한 학기 동안 인천대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중 특히 인상 깊었던 수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사쿠라: 한국어 수업이나 일본어 수업밖에 없어서 특히 인상 깊은 수업은 없지만, 선생님들이 다 좋은 선생님이라서 어느 수업도 재미있었어요.

오민준: 수업이 어렵거나 하진 않았나 보군요. 부럽습니다. 저는 모든 수업이 쉽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캠퍼스 생활이나 학교 분위기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사쿠라: 이건 하나 확실합니다. 캠퍼스가 너무 넓어서 몇 번이나 길을 헤맨 경험이 가득해요. 그래도 평지라 다행이었죠.

오민준: 동의해요. 확실히 캠퍼스가 넓게 펼쳐진 느낌이 많긴 합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한국의 일상에서 가장 흥미롭다고 느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쿠라: 학교 밖에 있는 사람인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주 말을 걸어 주시는 것이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안 걸어서.

오민준: 저한테는 아무도 말 안 걸던데요. 아마 사쿠라에게 좋은 인상이 뵈어져 나와서 그런 걸 겁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는 어땠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기대 중)

사쿠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엄청 많아서 어렵지만 역시 토토로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줬어요. 토토로 빼면 수업 때 만나고 자주 놀아간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 편지를 써줘서 비행기 안에서 몇 번이나 읽었어요.

오민준: (만족 중) 토토로는 친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고마워요.

-이제 슬슬 막바지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이번 교환학생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변화나 영향을 주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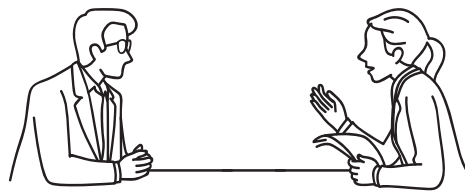
사쿠라: 한 학기 동안 한정된 시간 속에서 친구를 아주 많이 사귀려고 이전보다 더 행동력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오민준: 워낙 잘 놀길래 여러모로 저도 배웠는데, 사쿠라도 노력한 거였군요. 덕분에 재밌었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천대학교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사쿠라: 私の力 나의 힘.

인천대에서 겪은 모든 경험은 저의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멋있는 한마디와 함께, 한 학기 동안 인천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낸 시간은 한 일본인 학생에게 배움과 성찰의 시간으로 남았다. 수업과 캠퍼스,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한 한국 사회는 그에게 새로운 시선과 경험을 안겨주었다. 이번 인터뷰는 교환학생이라는 짧지만, 밀도 높은 시간이 한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 이루어진 이 만남이 앞으로도 인천대학교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우들을 위한 인터뷰: 선배들의 현실 팁

에디터. 이 수
디자인. 김 은

일본지역문화학과에 왔다면, 다들 한 번쯤 교환학생을 꿈꿔 보셨을 텐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교환학생을 계획 또는 고민하는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2025년에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20학번 박건아 학우님, 23학번 김민석 학우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일본 대학 문화의 차이, 생활비와 절약 팁, 교환학생 생활에서 힘들었던 순간과 극복법 등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Q. 한국과 일본 대학 문화는 어떤 점에서 가장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그 차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떻게 적응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20학번 박건아(기타큐슈 시립대학) : 대학에서의 문화 차이는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적응하는 것에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학 과정이었기에 일본 학생들과 수업을 들을 일이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23학번 김민석(훗카이도 대학) : 한국 대학교와는 다르게 일본 대학교는 학과에서 진행되는 신입생 환영회, 개강총회, MT와 같은 친목성을 도모하는 활동이 없기 때문에 학과 내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인 대학생들 에게 있어서 학과는 '수업을 듣는 곳'이고, 대부분의 친목성 활동은 동아리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동아리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사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Q. 일본어로 수업을 들을 때 필기는 어떻게 하셨나요?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일본어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20학번 박건아(기타큐슈 시립대학) : 저는 어학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았습 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규 과정의 경우는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벅차하시는 분들이 꽤 있 더군요. 기본적으로는 수업의 어려운 부분을 같이 듣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추천하고 녹음, 녹화, 촬영을 자주 하 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3학번 김민석(훗카이도 대학) : 일본어를 귀로 듣고, 바로바로 번역해서 한국어로 필기했던 것 같습니다. 단어 자체가 중요 한 경우에는 일본어로 필기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따로 일본어를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모든 수업이 분야, 자주 쓰이는 단어, 전문 용어들이 다르고,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수업을 위한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 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수업을 들을 때보다 3배, 5배씩 더 집중하면서 수업을 들었고, 수업 때 따놓은 녹음본 을 집에 와서 밥 먹을 때, 잘 때, 게임할 때 등등 노래처럼 틀어놓고 들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진리(眞理)와 가상(假象)

'벽 넘어에 남자가 서있다.'
진리라고 할 수 있는가.
'확인해보다' 의문
'있다' 사실(진리)

진리 대응설(心理対応説)

명제나 신념이 현실과 대응 하는가?

진리의 종합설(眞理の整合説)

명제를 서로 확인함.

진리의 프라그마티즘(眞理のプラグマティズ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이 진리. 그것을 증명함.

실수도 할 수 있지!
진리는 (니체) 誤謬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생명이 살아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함. 내가 지금 서 있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 가능성이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면 무서워서 못 삼.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설정하고 살아감.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을거야! 라는 입장

Q.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였나요? 혹시 절약 팁도 있을까요?

20학번 박건아(기타큐슈 시립대학) : 학교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는 월세, 관리비, 식비 등을 포함해서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갔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여유로웠던 편이었기에 이곳저곳 다니고 먹으면서 많이 사용하긴 했습니다. 절약하고자 하신다면 역시 직접 요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처 마트에서 저렴한 식재료들을 구매하시면 외식보다 상당히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요리를 못 한다면 근처 가성비 좋은 식당을 자주 이용하세요... 굶주나 가차삼도 많아서 무심코 돈을 쓰게 되는데, 돌이켜 보면 굳이 필요 없고, 귀엽지도 않은 애물단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들고 오는 것도 상당한 일이기 때문에 꼭 갖고 싶은 것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23학번 김민석(훗카이도 대학) : 지역마다, 각자의 생활 습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기숙사비, 관리비와 같은 것을 제외한 생필품, 식비와 같은 생활비만으로 한 달에 400,000-500,000원 정도 지출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알고 지내는 한국 유학생들은 최소 생활비가 700,000-800,000원정도 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 두 끼를 거의 매번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가면 꼭 해봐야 하는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추천하시는 이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20학번 박건아(기타큐슈 시립대학) : 교환학생들을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곳저곳 여행을 가거나 동아리 같은 활동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너무 공부나 성적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노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알차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해선 놀 때 혼자 놀거나 다른 한국인하고 놀지 마시고,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현지 일본 학생들과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23학번 김민석(훗카이도 대학) : 아르바이트, 동아리, 평소에는 가볼 수 없는 일본 지역 탐방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환학생을 가는 이유는 '진짜 일본, 즉 일본의 현실을 경험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뽀속 깊이 느끼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쉽고 접근성이 좋은 방법이 위의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Q. 교환학생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20학번 박건아(기타큐슈 시립대학) : 다른 친구들과 아침까지 노래방을 갔던 것도 즐거웠고, 제 방에서 같이 요리해 먹은 것도 즐거웠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궁도부에 들어가서 궁도를 배워 봤는데 친절하게 잘 도와주고, 활을 싸보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처음으로 과녁을 맞췄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23학번 김민석(훗카이도 대학) : 저는 무려,, 일본인 친구들과 캠핑을 하다가 산에서 내려온 여우한테 지갑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ㅠ 친구들이랑 야끼소바 만들어먹고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나가 봤더니 여우가 저희가 들고 온 비닐봉지 중 하나를 물고 있더라고요.. 그냥 쓰레기봉투인 줄 알고 헤에~ 키츠네 카와이~ 하면서 사진만 많이 찍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 봉투안에 제 지갑이 들어있었을 줄은..



Q. 교환학생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셨나요?

20학번 박건아(기타큐슈 시립대학) : 교환학생 초반에 사람들과 친해지기 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외롭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후 친해진 사람들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보통 교환 학생을 갔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극과 극인데 힘들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 맞는 사람이 없던 것이 크다고 하더군요. 교환 학생을 가시게 된다면 용기 내서 먼저 다가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3학번 김민석(훗카이도 대학) : 외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본어를 잘하고, 아무리 일본에 대해 잘 알고, 아무리 외향적이어서 친구를 잘 사귀는 사람이어도, 자신이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에 떨어져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심한 외로움을 몰고 왔습니다. 언제든 힘들 때 술 한잔할 수 있는 친구들,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0부터 다시 인간관계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외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친구들이나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언젠가 일본에서 살게 되면 당연하게 버텨야 하는 것들'이라는 생각으로 자기암시를 걸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Q. 교환학생을 다녀오면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20학번 박건아(기타큐슈 시립대학) : 생각해 보면 막상 크게 변한 것은 없던 것 같습니다. 일본어 실력 조금 늘고 자신감이 생겼다 정도 같아요. 하지만 결국 '변화했다' 보다는 '경험했다'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 시절의 추억은 짧은 인생 중에서도 상당히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23학번 김민석(훗카이도 대학) : 수업을 들을 때, 특히 사회학, 문화와 관련된 수업에서 더 넓은 시야로 수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일본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을 넘어 일본에서 경험하고 보았던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일본어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Q. 앞으로 교환학생을 갈 학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20학번 박건아(기타큐슈 시립대학) : 교환학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환학생을 앞둔 분들에게는 시간을 최대한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더라도 교환학생 기간에는 최대한 여러 곳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많은 활동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한 학기를 다녀왔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지나가서 후회가 많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것에도 많이 도전하고 조금 더 용기를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3학번 김민석(훗카이도 대학) : 무조건 가세요!! 너무 좋아요!!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생활패턴이 다르기에, 일본에서의 생활은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좋은 것과, 일본에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가서 자신이 무엇을 얻어오고 싶은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타지에 발을 내디딜 용기가 정말로 본인에게 존재하는지 많이, 또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서 솔직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나눠주신 덕분에, 교환학생을 고민하는 학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팁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건아 학우님과 김민석 학우님께 감사드리며, 이 글이 앞으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우분들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면접.. 막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26년도 1학기 교환학생 면접 TIP-

에디터. 김 진
디자인. 이 수

교환학생 면접은 많은 학생들에게 설렘과 부담이 동시에 느껴지는 과정이다. 지원 절차나 일정은 공지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는지, 어떤 준비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쉽게 알기 어렵다. 그로 인해 교환학생 지원을 앞둔 학우들 중에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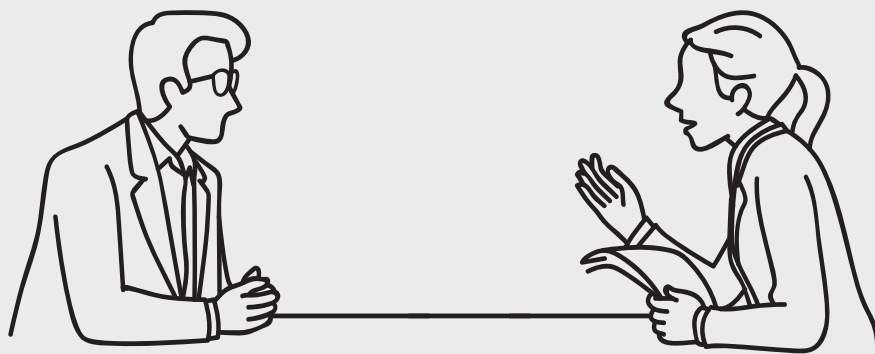
이번 학기 교환학생 선발 과정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의 면접 경험을 바탕으로, 본 기사는 실제로 출제된 질문 유형과 면접 분위기,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팁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부터 학교를 대표하는 교환학생으로서의 태도를 확인하는 질문까지, 면접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이 앞으로 교환학생 지원을 고민하는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우들에게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환학생 진행 과정 >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인천대) 교환학생 신청	(인천대) 9월 1째주 교환학생 면접 9월 3째주 교환학생 면접 합격 결과 발표	(인천대)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 (상대교) 비자 신청 및 교환학생 신청	(상대교) 교환학생 신청 결과 발표	(상대교) 기숙사 및 수강신청 진행	(상대교) 기숙사 및 수강신청 진행	(상대교) 비자 신청 결과 발표 및 입국 준비

우선 면접 과정에 대한 설명에 앞서 대략적인 교환학생 신청 진행 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2학기에 신청하여 다음 해 1학기에 교환 예정인 일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여름 방학부터 교환학생 신청에 대한 공고가 뜨며, 이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학교의 명단이 인천대 국제교류과의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그 이후, 면접이 진행된 뒤 스케줄표와 같이 진행됩니다. 상대교의 사정에 따라 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전개 과정으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나라에 파견된다고 해도, 파견되는 대학에 따라 기숙사나 수강신청 등과 같은 진행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대학	교토외국어대학	외국고등학교	1학기 또는 2학기	2명	일본어	1학년 2학기 이상 또는 2학년 1학기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일본어능력시험 2등급, 3등급)	전학년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전 재외
	호시카와대학	외국고등학교	1학기 또는 2학기	2명	일본어	1학년 2학기 이상 또는 2학년 1학기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일본어능력시험 2등급, 3등급)	전학년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전 재외
	히로시마대학	일본-외국고등학교 (일본어교과 수업을 수강)	1학기 또는 2학기	2명	일본어	1학년 2학기 이상 또는 2학년 1학기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일본어능력시험 2등급, 3등급)	전학년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전 재외
	키요토시립대학	외국 또는 일본고등학교	1학기 또는 2학기	2명	일본어	1학년 2학기 이상 또는 2학년 1학기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일본어능력시험 2등급, 3등급)	전학년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전 재외
	도쿄도립대학	일본고등학교	1학기 또는 2학기	2명	일본어	1학년 2학기 이상	전학년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전 재외
	히로시마시립대학	외국고등학교	1학기 또는 2학기	2명	일본어	1학년 2학기 이상 또는 2학년 1학기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일본어능력시험 2등급, 3등급)	전학년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전 재외
	후쿠오카시립대학	일본고등학교	1학기 또는 2학기	2명	일본어	1학년 2학기 이상	전학년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전 재외
	도시샤대학	외국고등학교	1학기	2명	일본어	1학년 2학기 이상	전학년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전 재외
	지쿠시대학	일본고등학교	1학기 또는 2학기	2명	일본어	1학년 2학기 이상 또는 2학년 1학기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일본어능력시험 2등급, 3등급)	전학년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전 재외
	호시카와대학	외국고등학교	1학기	2명	일본어	1학년 2학기 이상 또는 2학년 1학기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일본어능력시험 2등급, 3등급)	전학년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전 재외
	야마가치대학	일본고등학교	1학기 또는 2학기	2명	일본어	1학년 2학기 이상	전학년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전 재외
	후쿠오카시립대학	일본고등학교	1학기 또는 2학기	2명	일본어	1학년 2학기 이상	전학년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전 재외
	카나기시립대학	일본고등학교	1학기 또는 2학기	2명	일본어	1학년 2학기 이상 또는 2학년 1학기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일본어능력시험 2등급, 3등급)	전학년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전 재외
	세넨대학	외국고등학교 (일본어교과 수업을 수강)	1학기 또는 2학기	2명	일본어	1학년 2학기 이상	전학년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전 재외
	교토외국어대학	일본고등학교	1학기 또는 2학기	2명	일본어	1학년 2학기 이상 또는 2학년 1학기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일본어능력시험 2등급, 3등급)	전학년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전 재외
	정신대학	외국고등학교	1학기 또는 2학기	2명	일본어	1학년 2학기 이상 또는 2학년 1학기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일본어능력시험 2등급, 3등급)	전학년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전 재외
	교토대학	일본고등학교	1학기 또는 2학기	2명	일본어	1학년 2학기 이상	전학년 일본어교과 일본어교과	전 재외

〈그림 1〉 26년도 1학기 교환유학 대학별 세부 정보

교환학생 면접 진행 과정

- 외국어 면접 | 인성 면접
-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진행
- 면접 담당자: 나카무라 유리 교수

26년도 1학기 교환학생 면접 질문 모음

- 자기소개
-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및 이유
- 한국 음식 소개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 고향 소개
- 일본인에게 인천대학교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 상대교 학생들에게 인천대학교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 1지망을 선택한 이유 및 지원동기

이번 학기 교환학생 면접은 온라인 화상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은 크게 외국어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명확한 발음과 차분한 태도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면접은 나카무라 유리 교수가 담당하여 진행되었으며, 질문은 단순한 평가보다는 지원자의 사고방식과 교환학생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어 면접에서는 언어 능력 및 기본 회화 능력을 판단했기 때문에 전공 과목인 '일본어 회화'를 수강하는 학생이라면 해당 수업의 시험을 보는 것처럼 편하게 유리 교수님과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학기에 함께 면접을 보았던 다수의 학생들이 "유리 교수님과 회화 시험을 보는 느낌이었다", "오히려 한국어 면접이 진중하고 무거운 분위기라서 많이 떨렸다" 와 같이 표현할 정도로 외국어 면접은 굉장히 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 면접 담당 교수님이 유리 교수님이기 때문에, 교환학생 면접 준비 등과 같은 것에 대해 교수님께 조언을 구할 수 없습니다.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유리 교수님께 찾아가서 '면접 질문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등의 질문은 할 수 없지만, '어떤 학교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조건에서 선택해야 할까요' 등의 질문만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주세요.

실제로 2026년도 1학기 교환학생 면접에서 출제된 질문을 살펴보면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문화적 이해를 묻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와 그 이유,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소개, 고향 소개와 같은 질문은 지원자의 일상적 경험과 표현력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주요 단어를 미리 공부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접에서는 지원자를 한 명의 학생을 넘어 학교를 대표하는 교환학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질문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본인에게 인천대학교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상대교 학생들에게 인천대학교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학교 이해도와 교류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환학생 면접 TIP, 상대교에 대해서 알기 >

면접 준비 과정에서 특히 도움이 되었던 것은 1지망 학교의 공식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보고 학교의 이념과 교육 커리큘럼을 미리 확인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학교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어떤 수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한 뒤 면접에 임했더니, 인성 면접 담당자분께서도 “많이 알아보셨군요”와 같이 긍정적으로 답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공 커리큘럼과 개설 과목을 참고해, 본인이 실제로 듣고 싶은 수업을 언급하며 지원 동기를 설명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경우, 홋카이도 대학교를 지망하는 동기에 대해서 홋카이도 대학교의 ‘아이누족 언어 학습의 기회’를 어필했으며, ‘국립대학교’라는 이점을 살려서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는 ‘왜 이 학교인가’라는 질문에 보다 설득력 있게 답할 수 있게 해주었고, 교환학생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있다는 인상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환학생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는 우리 학교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느꼈던 한계 등을 함께 얘기해서 ‘이 학교를 가야만 한다’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필자는 토도로 집행부로 활동하며 학교 축제 부스에도 참가했으나, 그 당시 집행부에 일본인이 없었던 관계로 실제로 일본인도 즐길 수 있는 학교 축제 부스 구성에 대한 한계를 느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환학생을 가고자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지망 학교에 대한 사전 조사는 지원자가 교환학생을 충분히 고민한 끝에 내린 선택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도 하며, 면접에서 자신의 학업 계획과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 마디 >

“일본어 면접은 뭔가 거창하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본어 실력”을 보기 위한 질문으로, 형식적인 질문이 아닌 일상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어 면접은 내가 정말 이 학교에 왜가고 싶은지 이유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상 질문을 2일? 만에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면접을 위해서는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떨지 않는 것이 베스트”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교환학생과 나중에는 취업시장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본권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일본어는 기초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뻔한 일본어를 공부해라! 라는 것보다는 교내외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라고 강력히 말하고 싶습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 남는 시간에 알바를 하든지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며 자신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교류하며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실천해나아가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환학생 면접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환학생 면접에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환을 가기 위해 거창한 활동은 안해도 된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를 계속 도전하고 해보는 친구들이 확실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답변 하기 위해서는 경험 한 것이 있어야 답변을 할 수 있기에 계속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모르겠다면 주변 동기들이나 선배들에게 물어보며 해볼 수 있는 것, 해볼만 한 것을 계속 찾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공부에 음악을 더하다

인천대 일본지역문화학과가 추천하는 J-POP 플레이리스트



에디터. 유 연
디자인. 이 서

들어가며 | 왜 J-POP인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음악은 가장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학습 도구 중 하나다. 가사 속 표현은 교재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제 언어의 뉘앙스를 담고 있으며, 반복해서 듣는 과정에서 발음과 리듬, 문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에서는 언어 학습과 더불어 일본의 문화와 감성을 함께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최근 일본 문화의 유행으로 예전보다 많은 이들이 J-POP을 즐겨 듣고 있다지만, 아직 유명하지 않은 노래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어 학습과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밴드 아티스트들의 J-POP 3곡을 소개하고자 한다.

추천곡 ① 〈Masterpiece〉 - KOTORI

KOTORI는 2014년에 작사/작곡/보컬/기타 **요코야마**, 베이스/트럼펫의 **사토**, 기타/코러스 **우에사카**로 구성되고 **사이타마현**에서 결성된 3인조 록 밴드이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1.25만명, 스포티파이 월별 리스너 수는 약 3만 6천명. 곧고 힘 있는 보컬과 감정을 자극하면서 다이내믹한 사운드로, 리스너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흔드는 음악을 들려준다.

〈Masterpiece〉라는 곡은 해당 밴드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정면으로 담아낸 곡이다. 이 노래는 짧은 유행에 휩쓸려 소비되는 음악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쉽게 부서지지 않고 누군가의 곁에 오래 남는 음악이 되고 싶다는 소망에서 출발한다. 듣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마스터피스’로 기억되고 싶다는 메시지는, 음악을 만들고 노래하는 이들의 진심 어린 자세를 고스란히 전한다. 사운드 또한 곡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뒷받침한다.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감미로운 기타 사운드, 흔들림 없는 울퉁한 보컬, 그리고 곡 전체를 든든하게 끌고 가는 드럼은 서로를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직설적이고 꾸밈없는 가사는 록밴드가 가진 에너지를 극대화하며,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도 깊은 울림을 만들어 낸다.

〈Masterpiece〉는 ‘완성’보다 ‘지속’을 이야기하는 곡이다. 지금 이 순간의 화려함보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 음악을 지향하는 태도는 KOTORI라는 밴드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음악을 단순한 결과물이 아닌, 마음과 신념의 표현으로 바라보는 이 곡은 J-POP 록 사운드의 진정성을 느끼고 싶은 이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곡이다.



僕の心臓から 放つメロディが
君のヘッドホンから 流れる瞬間
いつまでも君が 口ずさむような
何年経っても 壊れない音楽

내 심장에서 날리는 멜로디가
너의 헤드폰에서 흐르는 순간
언제까지나 그대가 흥얼거리는 듯한
몇년이 지나도 깨지지 않는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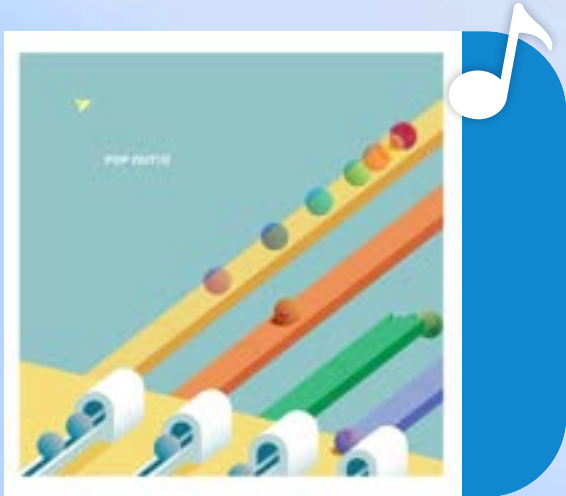
Masterpiece/KOTORI

추천곡 ② 〈落日々〉 - First Love is Never Returned

First Love is Never Returned는 2018년에 작사/작곡/보컬/키보드/기타 **이시다**, 베이스 **사토**, 기타/키보드/코러스 **코타케모리**, 드럼 **츠네모토**, 기타/코러스 **아마모토**로 구성되고 홋카이도에서 결성된 5인조 밴드이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1.33만명, 스포티파이 월별 리스너 수는 약 15만명. 투명하고 감성적인 이시다의 압도적인 보컬을 무기로 R&B를 원천으로 한 팝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곡은 무엇보다 베이스가 곡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고 이끌어 가는 노래다. 베이스가 전면에서 곡의 흐름을 주도하며, 담담하면서도 묘하게 끈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이 베이스 라인을 축으로 곡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운드는 안정적이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긴다. 보컬은 이른바 ‘차력쇼’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분명히 화려한 표현력을 지니고 있지만, 과하게 튀지 않는다. 오히려 특유의 음색이 베이스와 기타, 드럼, 그리고 코러스가 만들어 내는 총위를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특히 뒤에서 받쳐 주는 코러스는 곡에 몽환적인 결을 더하며, 감정을 직접적으로 폭발시키기보다는 서서히 스며들게 만든다. 이 곡이 주는 인상은 단순히 차분하다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밀도가 존재하고, 그 밀도는 반복해서 들을수록 더욱 분명해진다. 베이스가 곡의 중심을 끝까지 끌고 가고, 그 위에 각 악기가 유기적으로 얹히며 하나의 풍경을 완성하듯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음악이다.

멤버 수가 5명인 밴드답게 사운드는 다른 1인~3인 아티스트와 달리 확실히 화려한 편이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과시적이기보다는 구조적인 풍부함에 가깝다. 이는 3인조 밴드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First Love is Never Returned만의 매력으로, 〈落日々〉는 이러한 밴드 편성의 강점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곡 중 하나다. 인디 음악의 섬세한 사운드 레이어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곡이다.



あっさり愛に包まれて
満ちてくなんてイイね
ぼんやり後ろ髪
引かれてはご愛嬌

담담한 사랑에 감싸여서
서서히 마음이 차오르는 것도 괜찮아
자꾸 미련이 남아 멈춰 서게 되지만
그런 모습도 그냥 귀엽게 봐줘

落日々/First Love is Never Retur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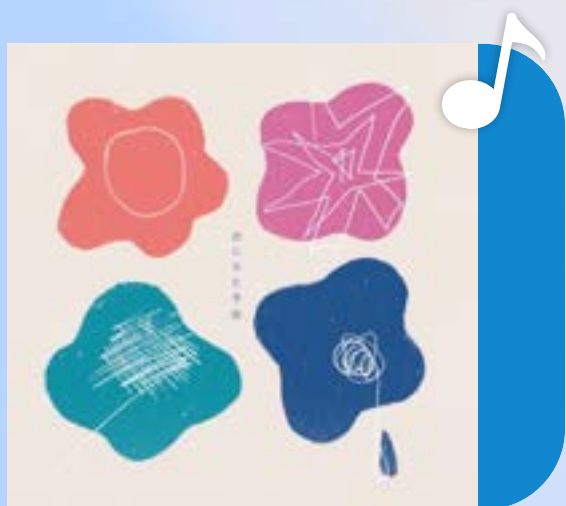
추천곡 ③ 〈Let “moon drop” down?〉 - moon drop

moon drop은 2014년에 결성되고 작사/작곡/보컬/기타 **하마구치**, 기타 **시미즈**, 베이스/코러스 **사카**, 드럼 **하라**로 구성된 4인조 밴드이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4.99만명, 스포티파이 월별 리스너는 약 9만명. 꾸준히 러브송만을 고집하는 방향성과 솔직한 가사, 라이브가 매력적인 밴드로 다양한 페스티벌에서 활약하고 있다.

해당 곡은 단순한 밴드의 자전적 노래를 넘어, 최근 일본 음악 시장과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고 있는 곡이다. 기타, 베이스, 드럼, 보컬이 모두 또렷하게 들리는 사운드는 라이브 연주를 중시해 온 moon drop의 매력이 돋보이며 해당 곡이 무대 위에서 완성되는 음악임을 분명히 한다. moon drop은 그동안 남녀 관계를 중심으로 한 러브송을 꾸준히 발표해 온 밴드이지만, 〈Let “moon drop” down?〉에서는 개인의 연애 서사에서 일본 음악 산업 전반과 팬들로 시선을 옮겼다. 특히 이 곡은 SNS와 숏폼 플랫폼을 통해 음악이 빠르게 소비되고, ‘바이럴’이 곧 인기를 의미하게 된 최근 일본 대중음악의 흐름을 정면으로 짚는다. 이는 라이브하우스를 중심으로 관객과 직접 호흡해 온 밴드 문화와는 분명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변화다.

가사 속에는 거친 라이브 현장을 사랑해 온 기존 팬들이, 밴드의 인기가 커지는 상황을 복잡한 감정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 동시에 그러한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그래도 라이브하우스에 와 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밴드맨의 태도 역시 숨김없이 드러난다. 이는 일본 인디 밴드 신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상업적 성공’과 ‘현장성’ 사이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Let “moon drop” down?〉은 현재 일본 음악 시장에서 밴드와 팬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또 어디에서 엇갈리고 있는지를 고찰하게 만드는 곡이다. 라이브하우스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일본 밴드 문화의 가치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음악 소비 방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 노래는 질문을 던진다. 그렇기에 이 곡은 moon drop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일본 밴드 신을 읽는 하나의 문화적 콘텐츠로도 의미를 지닌다.



これがやりたい
 ことなんだよ
 だから側に居てくれよ
 だから側に居てくれよ
 だから「もう、ライブハウス引退」
 なんて言うなよ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야
 그러니까 내 곁에 있어 줘
 그러니까, 계속 내 옆에 있어 줘
 제발 “이제 라이브하우스 은퇴할래”
 같은 말은 하지 말아 줘

Let “moon drop” down?/moon drop

마무리 | 음악으로 확장되는 일본어 학습

이번에 소개한 세 곡은 단순히 ‘좋은 노래’라는 공통점만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 곡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일본의 음악 문화와 밴드 신,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가치관과 태도를 담아내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남고 싶은 음악에 대한 신념, 사운드의 구조와 편성에서 드러나는 밴드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변화하는 음악 시장 속에서 팬과 밴드가 맺는 관계에 대한 고민은 모두 현재 일본 대중음악이 마주한 현실을 반영한다.

학과에서의 일본어 학습은 언어를 익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음악을 통해 일본 사회의 감수성과 산업 구조, 그리고 그 안에 살아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과정은 일본어를 더욱 입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익숙한 히트곡을 넘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경험 역시 일본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번 J-POP 플레이리스트가 일본어 학습자들에게는 언어에 대한 흥미를, 일본 문화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음악을 듣는 순간부터 가사를 이해하고, 그 배경을 고민하는 과정까지 그 모든 경험이 일본어 공부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일지문 레전드 콘텐츠 “단문체”의 참여에 대한 고찰

A Study on Participation in the Legendary Content ‘Danmunche’ of the Department of Japanese Regional Culture

목적: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의 대표 특성화 프로그램인 일본단기문화체험(이하 단문체)은 일본 현지 조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 수준의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과 내에서는 참여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아 프로그램의 가치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단문체의 진행 구조와 교육적 효용을 정리하여, 단문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식 개선 및 참여 확대의 단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키워드: 단문체, 가자

Purpose: The JapanIncheon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Japanese Regional Culture offers a signature specialized program, the Japan Short-Term Cultural Experience (hereafter “Danmunche”), which provides opportunities for on-site research in Japan and also offers a certain level of financial support. Nevertheless, participation within the department has not been as high as expected, and the program’s value has not been fully shared. This paper aims to organize the program’s structure and educational benefits, thereby helping readers better understand Danmunche and offering insights that may contribute to improving perceptions and increasing participation.

Key words : danmunche, let’s go

1. 단문체를 통한 성장

단문체는 일본 현지에서 관심 분야를 기반으로 설정한 주제를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하며, 현장의 맥락을 읽는 힘과 일본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하도록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체 과정은 크게 오리엔테이션, 현지 조사, 결과물 제작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1) 오리엔테이션 단계

오리엔테이션은 답사 주제와 목적을 구체화하고, 조사 장

소 및 인터뷰 대상 섭외 등 현지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보통 1학기 중순부터 약 3개월 간, 총 5회 내외로 진행된다. 교수님께서서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지점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 (1) 답사 주제 및 목적과 답사 장소들이 개연성 있는가
- (2) 인터뷰하고자 하는 장소는 미리 연락했는가
- (3) 해당 내용이 정말 현지에서만 확인 가능한 것인가
- (4) 소화 가능한 일정인가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어디를 갈 것인가’를 정하는 수준을 넘어, 자료 조사 능력, 조사 계획 수립, 논리적 글쓰기 등 대학에서 필요한 기본기를 단계적으로 훈련하게 된다.



<그림 1> 2025 하계 단문체 1차 OT

2) 현지 조사 단계

현지 조사는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더 적합한 장소나 인터뷰 대상을 발견해 유동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기도 한다.

또한 매일 밤 진행되는 답사보고회를 통해 교수님과 동기들이 당일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이때 교수님은 조사 내용의 방향성과 함께 태도 측면에서도 조언을 제공한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 (1) 조사한 정보 중 주제 및 문제의식에 맞는 내용만 선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 (2) 스스로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부딪혀보는 시도도 중요하다.
- (3) 결과뿐만 아니라 이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중요하기에, 다른 조의 발표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처럼 학교 생활 및 인생 전반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으신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학생들은 일본어 능력뿐 아니라 위기 대응, 협업, 타인 이해, 경청 등의 능력까지도 함께 습득하게 된다,



<그림 2> 2025 하계 단문체 현지 도착

3) 결과물 제작 단계

결과물 제작 단계에서는 현지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 포스터 형식의 결과물을 제작하는 단계다. 2학기 개강 이후 매주 강의 시간을 활용해 피드백이 진행된다. 교수님은 특히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글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도록 지도한다.

- (1)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제목과 조사 목적에 담아야 한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뒷내용이 전부 정보를 나열하는 글이 될 수 있다
- (2) 글의 방향성에 맞게 분량을 배분하는 것이 좋다
- (3) 어휘 사용 시 독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추가로 설명하거나 혹은 일본어를 병기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조사 결과를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자료를 구조화하고 독자에게 전달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글쓰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요컨대 오리엔테이션부터 결과물 제작까지 반년 이상 이어지는 과정은, 일본에 대한 이해의 확장뿐 아니라 조사하고 정리하고 표현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적 장치로 기능한다,



<그림 3> 필자의 조에서 만든 단문체 포스터

2. 단문체의 추억 형성과 준비물의 중요성

현실적으로 단문체 참여 과정에서 가장 먼저드는 감정은 ‘힘들다’일 수 있다. 이는 해보지 않은 시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오는 피로감에 가깝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그 ‘힘듦’이 추억으로 전환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낮에는 조원들과 조사를 수행하고, 밤에는 답사보고회를 통해 교수님 및 동기들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공통의 사건과 이야기거리가 축적된다.

필자가 참여한 2025 하계 단문체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여권 분실 사건이었다. 한 학생이 호텔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여권을 잃어버렸고, 해당 조는 큰 혼란을 겪은 채

답사보고회를 맞이했다. 다행히 교수님과 해당 학생이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큰 문제 없이 조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지금 돌아보면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현장에서의 변수 대응과 준비물 구비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한 사건이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단문체에 참여한다면 교수님이 준비물란에 적어둔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실제로 여권 사본도 그 중 하나이며, 적어도 여권 사본은 챙기는 것이 좋다.

3. 결론

이처럼 단문체는 지원금이라는 단순 금전적 혜택뿐 아니라, 현장 조사의 경험, 학생들의 성장, 심지어는 추억까지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해보지 않았던 것을 시도하는 과정은 다소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이 많다.

필자 역시 단문체에 대한 다양한 선배들의 후기를 들었음에도, 직접 참여하기 전에는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결국 단문체의 장점은 글로 설명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단문체에서 직접 참여해 몸소 체험해볼 필요가 있다.

● 25년도 디베이트 집중 취재 ●

사실 저는 한자는 거짓말 조금 보태면 5백 개 정도는 알아요

외국어 학습이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을 넘어 사고력과 표현력을 요구하는 시대에, 일본어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경험은 대학생에게 중요한 학습 기회가 됩니다. 한국인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대회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어 능력은 물론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력을 함께 기를 수 있는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일본어를 전공하거나 일본어 학습에 관심 있는 한국인 대학생들이 사회적·시사적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며, 일본어를 ‘공부의 대상’이 아닌 ‘사고와 설득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회입니다. 특히 언어 정확성뿐 아니라 논리 구성과 팀워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일본어 실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일본어 디베이트 프로그램의 취지와 참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어 디베이트 프로그램이란?

인천대학교 ‘일본어 디베이트 프로그램’이란, 신은진 교수님과 나카무라 유리 교수님의 지도하에 ‘한국인대학생일본어디베이트대회’를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신입생과 기존 학생들이 팀을 이루며, 입론·질의·제1반박·제2반박 각각 1명씩 총 4명의 예선 출전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인원이 부족할 경우, 3명에서 출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불리한 대회도,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유리한 대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선 참고 바랍니다. 실제로 25년도 ‘한국인대학생일본어디베이트대회’의 베스트 디베이터상을 수상한 학생은 3명이 출전한 학교 소속이었기 때문에 팀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역량이 중요한 대회입니다.



< 25년도 디베이트 단체 사진 >

전문적인 일본어 능력

일본지역문화학과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나카무라 유리 교수님의 ‘일본어 회화’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거나 수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어 회화’ 수업을 수강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현지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기초적인 일본어 회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취업을 목표로 두고 있는 재학생이라면 일상적인 회화 능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일본어를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베이트 활동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적인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다양합니다. 위 그림은 25년도 2학기 디베이트 활동 당시 사용했던 대본입니다. 해당 대본의 내용부터 역양까지 전부 연습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회화에서 지적받지 않는 액센트까지 교정할 수 있습니다.

회화 수업에 다정하게 감사주시는 유리 교수님께 혹독하게 훈련받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에서 지장이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정하게 훈련 시켜주시기 때문에 일본어를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디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2つ目のメリットは「青少年の健康の増進」です。
 現状分析です。
 現在、韓国では多くの10代の青少年がSNSを使用していますが、彼らの精神に大きな問題を引き起こしています。
 証拠資料を引用します。 出典はソウル新聞2025年4月の記事です。 引用開始。
 研究チームは、青少年のSNS使用傾向を大きく3つのタイプに分類した。「低水準型」はSNSをほとんど使わないが、1日1時間以内だけ使用したグループ、「増加型」は最近使用量が少なかったが、期間が経つにつれ次第に使用時間が増えたグループ、「ハイスコア型」は安定した使用量が急激に増加したが、以後多少減ったグループだ。
 分析の結果、「増加型」の青少年は「低水準型」の青少年より自殺行動の危険性が2.1倍、「ハイスコア型」は2.4倍高いことが分かった。ここで言う自殺行動は単純な憂鬱感ではなく、「死にたい」という考えから「自殺の試み」まで含む深刻な精神健康問題であり、早期介入が必要な信号と見なされる。 引用終了。

このように多くの青少年がSNSの中傷者に悩まされています。しかし、これは単にオンラインで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

次に、この問題の重要性に移ります。
 オンラインだけでなく、オフラインでも研究資料を引用します。 出典はファイナンシャルエコノミクス製品のガスを吸い込む行為が、SNSでいる。(中略)今年6月、アメリカのアダルト10代の少女レナオウキナが集中治療室で



これから肯定側の立論を始め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たします。
 それでは、プランから発生するメリット2点説明します。
 1つ目のメリットは「デジタル犯罪からの保護」です。
 現状分析です。
 現在、韓国ではSNSを通じて青少年が犯罪の被害者となっています。韓国女性家族部「2025年4月判決文分析資料」引用開始。
 2023年度に児童青少年を対象とした性犯罪に関する個人情報登録され、判決文の入手が可能であった分析対象の加害者は3,452人、被害者は4,661人であった。(中略)
 「インターネットチャットなどを通じて知り合った人」から被害を受けたケースが全体の46.1%で最も多く、接合経路としては「チャットアプリ(45%)」、「SNS(22.8%)」、「メッセージ(10.7%)」の順であった。引用終了。

< 25년도 2학기 디베이트 활동 대본 >

또한, '아카데미 일본어' 수업에 대한 연습도 가능합니다. 2학년 필수 전공 과목 중 '아카데미 일본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1학과와 2학기 모두 필수 전공 과목이며, N2 수준의 일본어를 요구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가장 큰 대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디베이트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면 이미 비즈니스적인 일본어를 어느 정도 눈으로 익힌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수업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학기가 시작할 당시 일본어에 자신이 없던 학생도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여 함께 대화를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무리

인천대학교 일본어 디베이트 프로그램은 단순히 대화를 준비하는 활동을 넘어, 일본어를 '사용하는 언어'에서 '사고하고 설득하는 언어'로 확장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활동을 통해 논리 구성과 발화 능력을 함께 훈련하며, 일상 회화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비즈니스·아카데미 일본어를 실제로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일본어 실력의 완성도만을 요구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인원수에 따른 유불리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팀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분들께서도 부담 없이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능력을 보다 전문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싶으신 분, 일본 취업이나 학문적 진로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께 일본어 디베이트 프로그램은 분명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본지역문화학과 재학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6 신입생을 위한 에디터의 꿀팁 대방출

25가 26에게 上

에디터. 곽 수
디자인. 곽 수

안녕하세요? 이번 기사는 26학번 신입생들에게 25학번이 맞으면서 배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꿀팁들을 전달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학과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1. 갓생은 좋지만 시간표는 맛있게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되어 1교시의 무서움을 모르는 친구들이 대다수인데요? 직접 경험해보면 그때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에이징 커브를 실감할 수 있어요! 1교시를 듣는 날이면 그날은 하루종일 피곤하더라고요.. 물론 “나는 갓생을 살거야!”라는 마인드는 좋지만, 우선 시간표는 최대한 맛있게 짜고, 남은 체력으로 갓생을 살아보아요. 그리고 공강은 가능하면 만드는 걸 추천해요! 주말이 3일이 되는 주4일제는 한 번 맛보면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ㅎㅎ.

2. 딸깍! 인사로 호감작 하기

인사가 은근 귀찮죠? 그치만 대학에서 소소한 인사 하나하나가 쌓여서 생각보다 큰 스노우볼이 굴러간답니다? 선배님들, 교수님들을 보면 무서워 하지 말고 일단 인사를 박으면 좋아요! 다들 살갑게 맞아주시기도 하고, 이게 쌓이면 좋은 인상도 남기고, 친해지기도 좋더라고요. 선배님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편해지고, 접근 불가능해보였던 교수님과도 조금은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저도 INFP라 대화하기는 조금 힘들었지만, 인사 정도는 가벼워서 덜 부담스러웠어요! 말 그대로 레전드 가성비 호감작이죠?

3. 미술랭 뽀치는 천원의 아침밥

배고프고 돈은 없고... 근데 단돈 천원에 든든한 한 끼? 이건 진짜 레전드 가성비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수업 시간 때 꼬르륵 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항상 아침을 챙겨먹는데요? 교통비, 술값, 밥값 등등 돈 나갈 구멍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침밥 정도는 가볍게 먹고 싶었는데 마침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저렴하고 든든한 아침밥을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 물론 저한테 밥 사달라 하면 그건 0원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ㅎㅎ.

신입생 여러분! 조금은 막막한 대학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어때요. 원래 1학년 때 시간표도 망해 보고, 공지도 놓쳐 보고, 말 거는 것도 어색하고 그런거죠 ㅎㅎ. 너무 완벽해지려 하기보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해보아요! 근데 아침밥은 진짜 추천해요! 그럼 이만 물러나볼게요 X

2026 신입생을 위한 에디터의 꿀팁 대방출

25가 26에게 下

에디터. 오 준
디자인. 곽 수

안녕하세요? 그만 질척대는 게 좋았을까요?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아서 결국 못 참고 또 왔습니다. 다 조언이니까 받기 싫어도 받아들이세요! 는 농담이고 사실 저도 많은 조언을 받았는데 와닿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편지 하나 읽는 기분으로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나 읽어 보시고 언젠가는 갑자기 뭐 내용이 떠올라서 도움이 되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읽는 데 재밌지 않았나요? 아닌가.

앞서 현수님은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꿀팁을 부려 주셨죠? “신입생 여러분! 조금은 막막한 대학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어때요. ><”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물론 나는 아닌데? 싶을 수 있지만 결핍 없는 완벽한 대학 생활은 하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모두 할 수 없고, 친구가 아닌 사람이 ‘친구’를 남발하는 공간 속에서 미워하는 법만 배우다가 무언가에 갇힌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성적 받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닫고, 지금까지 맡아온 책임감과 다른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너무 겁쟁인가요? 다 이렇지는 않고 저는 좀 그랬기에. ㅎㅎ;; 다시 다시

1. 무너져도 일어나보자!

아무튼 뭐 항상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니, 무너져도 혼자 일어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구절 중에 [지도에 없는 곳으로 가려고 집을 나선 날 바람이 몹시도 불었네]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은 하루 하루 미지의 경험을 합니다. 혼자서요! 물론 도움을 요청하면 다들 도와줄 거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혼자서 성장하는 법을 꼭 익혔으

면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필요 없는 취미가 몇 개 있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요.

안 물어봤겠지만 저는 2025년에도 좀 힘들 때마다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여러 만들어 깔고 있어요. 축구도 보기 시작했고, 아무도 안 좋아하는 밴드를 좋아하고, 기타 땡까땡까 치고, 운동을 해요. 롤에도 좀 진심임

2. 행복했으면 해! (feat. 소모임 영입)

이랬는데 이번 26분들 대부분 MBTI 극 E에 술자리의 유재석이면 어찌죠. 현수 님? 저도 현수 님처럼 INFP인데 이거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누군가는 도움이 되겠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당연히 저는 모든 26분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저는 해피엔딩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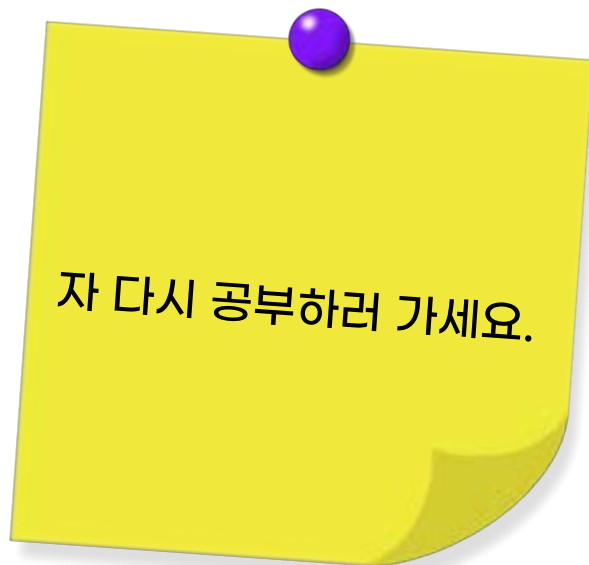
글을 쓰고 있으니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이 이 소식지 아이를 왜 여기까지 자세히 읽고 있을까? 선배의 권유? 여러분의 의지? 아이 들어오고 싶어서? 모르겠네요. 그래도 많은 걸 얻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꽤 공들여서 만들어요. 굳이 말 안 해도 알게 되겠지만 우리 학과는 소모임에 진심입니다. 꽤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막바지인데요. 다시 돌아보니 너무 무겁게 잡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재미가 없어요. 위에서 못한 뜬금없는 말들 적으려 했는데 그것조차 진지합니다. 학업에 도움될만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럴 처지가 못 됩니다. 또 미안하네요.

그럼에도 해주고 싶은 말들은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언행에 신중해야 하지만 또 생각이 너무 많으면 망가집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마음 편한 친구들 소중히 하시고, 잘 자고 밤새우지 말고, 끼니 거르지 말고, 남 이야기하지 말고, 교수님들 무서워 말고, 취업 경력개발원 1학년 때부터 몇 번 가보면 좋아요.

아 그리고 또 저도 밥 많이 사줄게요. 진짜 거의 항상 혼자 밥 먹어서 눈치 볼 이유가 없음. 가끔 이승주라는 분과 식사 데이트하는데, 좋은 사람입니다. 앗, 근데 자랑 승주님은 학식 아니면 안 돼요.

선배들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잘 지내보아요. 저는 후배라는 존재가 믿기지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이랑 똑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참; 이걸 쓰고 있는 게 맞나 싶은데요. 이왕 모인 거 같이 재밌게 살아가 봅시다. 두서없는 글 읽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025년의 "아이"들



2025-2 "아이"들의 활동 후기

에디터. 아이
디자인. 이 수

오 민

아이 활동을 통해 학과에서 지내온 시간들을 되새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디자인을 하면서 스스로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씩 완성되는 모습을 보니 역시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학과의 소식지 제작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서

2025년도 하반기 아이를 편집하면서 1학년생활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라 힘들고 모르는 일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 즐거운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일지문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고 추억하고 싶습니다! ^_^



김 은

이번년도 아이를 디자인, 편집하면서 다른 일문과 학우 여러분들보다 먼저 기사들을 읽게 되는 호사를 누렸네요. ㅎㅎ 많은 기사들에 유용한 내용들이 제법 있어서, 제 남은 학교 생활에 참고해보려고 합니다. 미숙한 실력이지만 아이에 보탬을 할 수 있어 보람찼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준

아이 활동을 하며 글로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간 시간이 앞으로 학과 생활에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 진

올해로 아이에서 활동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매 학기마다 소식지를 적을 때마다 한 학기를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엔 일지문 소식이 궁금해지고 그리워지면 아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챙겨 볼 것 같아요. 이번 학기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수고하는 부장님께 감사 인사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 수

안녕하세요? 올해에도 무사히 아이 활동을 마치게 되어 다행입니다! 아이 활동을 통해 한 학기를 돌아보며, 재미있는 추억들, 부족했던 점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2026년 되세요!



이 서

소식지 소모임 '아이'에서 네 번째 소식을 제작하며 학과의 일상을 글로 기록하는 경험을 이어갈 수 있었다. 기사 주제를 함께 고민하고 글을 다듬는 과정에서 협업의 중요성과 글쓰기의 재미를 다시 한 번 느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평소 지나치기 쉬웠던 학과의 모습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최 영

하반기 아이 소식지를 통해 학과 활동을 기사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첫 기사 작성이라 학과 활동들을 잘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도 있었지만,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학과 활동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지역문화학과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고, 앞으로 더 많은 활동에 직접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소식지를 통해 학과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있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유 연

2025년도 아이 활동을 하면서 직접 기사를 쓰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했던 학교 활동이나 학과 행사에서도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찾고,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구성원으로서 함께 기사를 작성한 에디터 학우 분들, 디자인을 맡은 학우 분들과 전반적인 제작과 진행을 맡아 주신 부장님께 감사합니다.



홍 아

학과 전체 후기 기사를 작성하며 지난 학기를 되돌아보니, 우리 학과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였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그저 '바쁜 학기'로 끝났을 시간들이 소식지라는 기록으로 남으면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2026년이 되었는데, 지난 기록들을 발판 삼아 올해는 더 즐겁고 활기찬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을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우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 경

이번 기사를 작성하면서 전반적으로 학생회에서 무슨 목적이나 목표를 갖고 운영을 해왔는지 알게됐다. 한일축제한마당같은 경우에는 나도 직접 운영부원으로 참여했던 활동이라 작성하면서 추후 후배들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작성했다. 이렇게 학과를 위해 힘써주는 학생회와 한일축제한마당같은 행사도 주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학과활동에 참여해주면 좋겠다

이 수

2025년 하반기 소식지 아이는 제게 특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약 2년 동안 아이에서 기사를 작성하며 활동해 왔지만, 제가 부장이 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ㅎㅎ 부장으로서의 활동은 감회가 또 새로웠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계속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부장이었음에도 저를 믿고 함께해 준 부원들 덕분에 이번 소식지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